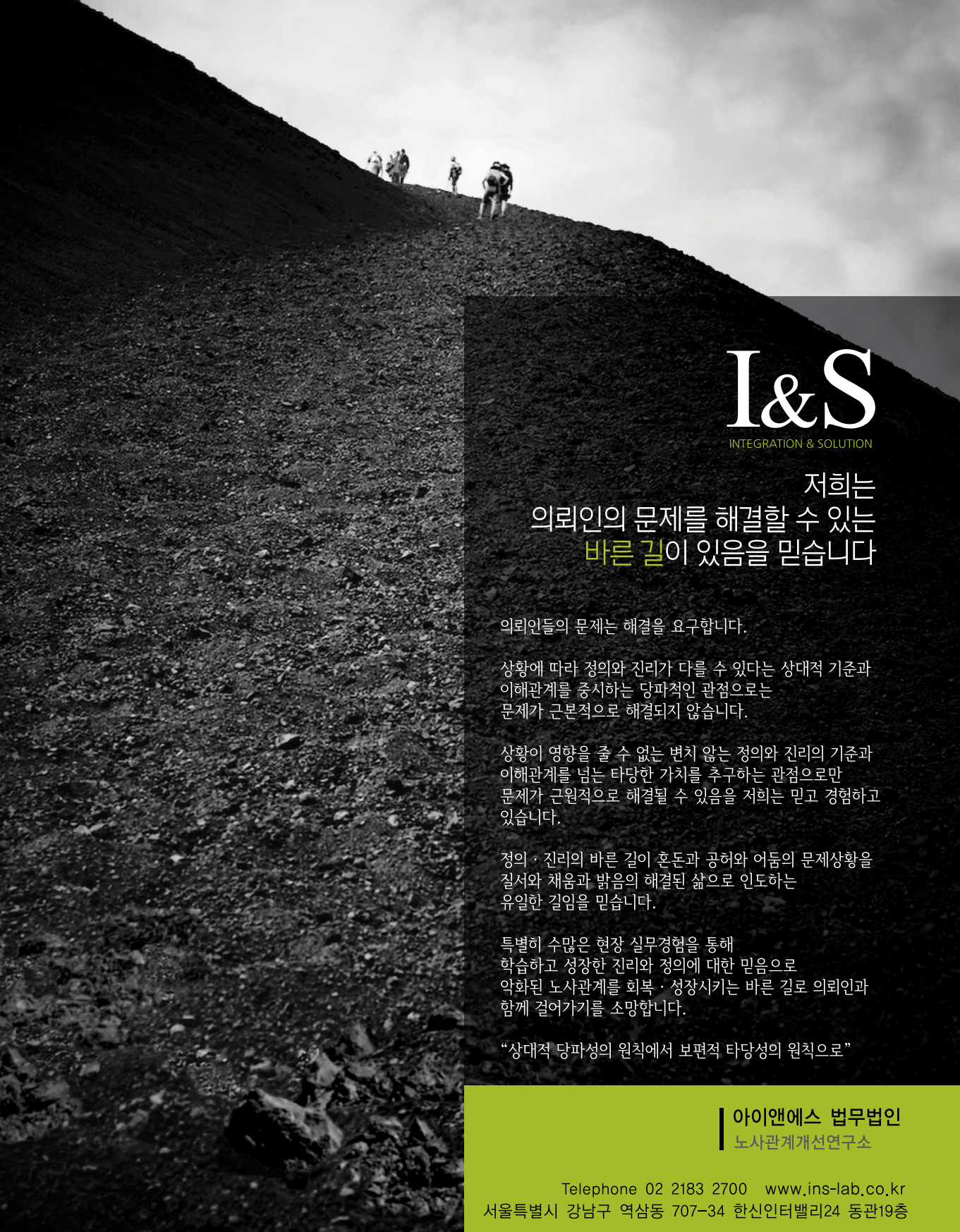


I&S

INTEGRATION & SOLUTION

저희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뢰인들의 문제는 해결을 요구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의와 진리가 다를 수 있다는 상대적 기준과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당파적인 관점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영향을 줄 수 없는 변치 않는 정의와 진리의 기준과
이해관계를 넘는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으로만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는 믿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의 · 진리의 바른 길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문제상황을
질서와 채움과 밝음의 해결된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진리와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악화된 노사관계를 회복 · 성장시키는 바른 길로 의뢰인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기독교적 역사관과 창조적 상상

손봉호 (대표주간)

상상이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mental picture)을 뜻한다. 책을 읽을 때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눈에 보이는 글자와 귀에 들리는 소리가 뜻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아야 이해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도 상상이 작용한다. 심지어 그림을 볼 때도 그 의미를 따지면 거기에도 상상이 작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 것도 보거나 듣지 않아도 멍하니 무엇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다. 넓은 의미로 상상이란 사람이 의식하는 것은 모두 상상이고 인간의 정신활동은 상상으로 이뤄진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상상한다.

사람들 가운데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와 새로 들어온 정보를 아주 잘 혹은 새롭게 연결하거나 새로운 그림조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철학자 칸트는 머리 좋은 사람이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 했다.

요즘은 창조적인 상상력이 인기를 끈다. 아직 아무도 그려보지 못한 그림을 그려보는 능력이다. 기억능력은 디스크나 USB가 훨씬 강하고 계산은 컴퓨터가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요즘 별 쓸모가 없어진다. 디스크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새로운 것을 상상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병을 고치고, 삶을 편리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한다.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다.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인은 역사가 발전하거나 새로운 것이 생겨날 수 있음을 부인했다. 전도서의 지적처럼 옛날에 있었던 것이 다시 일어날 뿐, "해아래 새것은 없다"고 믿었다. 이런 관점을 '순환적 역사관' 혹은 '과거지향적 역사관'이라 부른다. 플라톤이나 사마천은 인류의 전성기 즉 황금시대(golden age)는 과거에 있었다고 가르쳤다. 중국에는 그것을 요순지절(堯舜之節) 혹은 태평성대(太平聖代)라 불렀다. 그래도 발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콩을 심으면 싹이 나고 잎과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이미 주어진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이라 믿었다. 그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개발(develop, envelope와 반대) 혹은 진화(evolution)였다.

없었던 것이 새로 창조될 가능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를 자극하거나 장려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이미 숙명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바꾸려 하는 것은 본질과 자연에 대한 도전으로 용납될 수 없었다. 그리스 사상가들이 가르친 이성(logos)은 본래 운명(moira) 사상에서 유래했다. 새로운 것이란 오히려 나빠지는 것이므로 오히려 경계하고 만류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와 로마 시인들은 시의 여신 뮤즈(Muse)가 시인의 마음에 들어와서(inspire) 말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많은 시의 첫 줄에 뮤즈를 초청하는 표현이 있다.

이런 역사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였다. 그는 그런 역사관이 역사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기독교의 '선적 역사관'(linear view of history)과 대조되며, 선적인 역사관에서 비로소 진보가 인정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것이 진보적 역사관을 가능하게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과거지향적인 역사관은 서양에서는 17세기, 동양에서는 19세기까지 지배적이었다. 종교개혁의 영향이 상당할 정도로 뿌리내렸을 때 비로소 역사관이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진 것이다. 그때부터 사회와 사고는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것을 마음껏 상상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와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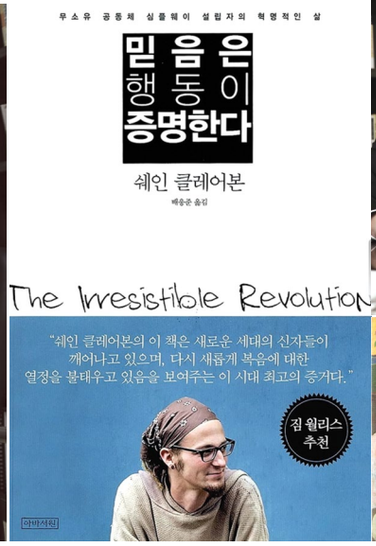
그러나 성경은 역사가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더 좋아진다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말세에 사람들이 더 악해질 수 있고 믿는 자들이 많지도 않을 것이란 가르침도 있다. 그러므로 피상적인 낙관주의는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나 창조와 종말의 교리는 미래지향성과 상대적인 창조의 가능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인류는 그 가르침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오히려 과거를 지나치게 무시해 버리고 무책임하게 자연을 착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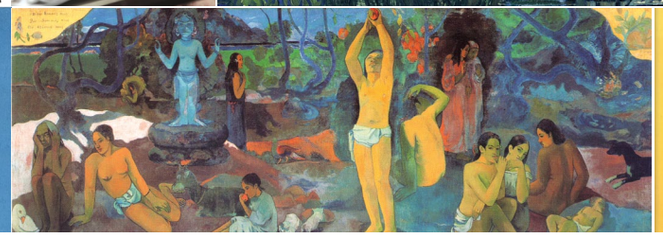
현대인은 그들이 누리는 상상의 자유와 발전이 기독교적 유산임을 잊어버렸고 따라서 감사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잘 모르는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기독교인들이야 말로 누구보다 이 위대한 유산을 누리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마음껏 상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쾌락과 편리가 아니라 사랑과 보존을 위해서 책임 있게 그 특권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Contents

WORLDVIEW · SEPTEMBER · 2013





COVER STORY

06 공공영역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_패트릭 눌런스 (인터뷰어 : 최용준)

SPECIAL

14 왜 다시 상상력인가?!! 거룩한 상상력을 위한 변명 _추태화

20 상상의 차이, 낙원을 만들다! 폴 고갱과 빈센트 반 고흐의 경우 _서성록

26 비유로 소통하고 상상력으로 창조하라_강진구

30 창조적 상상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_나동훈

COLUMN

02 대표주간 기독교적 역사관과 창조적 상상 _손봉호

38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_신국원

41 HOW.TO.주일학교 비전과 자아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 _신동열

CULTURE

59 유머 학점차이 _손봉호

BOOK REVIEW

46 서평 은밀한 세계관 _송인규

51 서평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_한정호

NEWS

58 사무국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하여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WORLDVIEW

2013년 09월호 WORLDVIEW 통권 159호

표지인물
패트릭 눌런스

〈월드뷰〉는 우리 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주간 손봉호
발 행 인 김승욱
편 집 인 신효영
편집위원 김정효, 김지원, 권태경, 백승현, 송태현, 양성만, 이상무, 이우성, 장수영, 전요섭, 조영길, 황의서
자문위원 신국원, 이상정, 조성표, 최현일
교정/교열 김선경
발렌티어 최희정 **객원사진** 장형규
디 자 인 황정희, 강새날
제 작 주식회사 세상바로보기
인 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 화 02-754-8004
팩 스 0303-0272-496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
블 로 그 http://cworldview.blog.me
모바일매거진 m.worldview.or.kr

공공영역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인터뷰어 **최용준** 객원사진 **장형규** 번역 **최희정**

한동대학교 최용준 교수(이하 최)가 벨기에 ETF의 패트릭 눌런스(Patrick Nullens, 이하 패트릭) 총장을 만났다.

Question 최용준(이하 최) **패트릭 눌런스 교수님, 간단히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nswer 패트릭 눌런스(이하 패트릭) 저는 벨기에의 대학 도시 루번(Leuven) 출신으로 10대를 보내고 있는 세 아들의 아빠이며, 브뤼셀에 위치한 복음주의신학원(ETF, 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Leuven)에서 기독교 윤리와 교리를 가르치면서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Question 최 **그렇군요. 벨기에 ETF의 총장으로 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nswer 패트릭 학교 전반의 리더십 활동이 저의 주요 사역입니다. 유럽 내 기독교인들과 학교 사이의 연결고리로, 또한 정부와 학교 사이의 주요한 관계를 다지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대학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자금 지원을 일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ETF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설명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매일 학교의 경영진과 재정 디렉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Question 최 **한국에서는 좀 생소합니다. 한국의 학자들과 월드뷰 독자들에게 ETF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패트릭 ETF는 신학과 종교학을 가르치는 대학원으로, 초교파적 개혁복음주의 신앙을 토대로 합니다. 매우 전형적인 신학원이기도 한데, 이는 신학과 종교학을 다루는 학교로써 유럽 대학 제도 내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학생 중 30~40퍼센트는 서로 다른 교단에서 왔고, 종교,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회자만 배출하는 신학교는 아닙니다. 우리의 교수법은 연구(research)에 기초해 있는데, 수업의 35~40퍼센트는 신학과 종교학에 관한 진정한 연구를 요구하며 50~60퍼센트는 교육에 할애합니다.

Question 최 **유럽의 중심부에 ETF를 설립하신 데는 특별한 비전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Answer 패트릭 학문적 비전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이 지적 이해를 위한 기본요소였던 유럽 수도원 대학의 오랜 전통이죠. 계몽주의 시대 이후 유럽의 역사에서 이 전통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 전통을 다시 복원하는 동시에 유럽의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한때 세속화의 물결이 거셌던 유럽은 다시 조금씩 복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는 매우 미약한 편입니다. 우리 학교는 지적 방식과 대학을 배경으로 유럽의 기독교적 근간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Question 최 **이제 지경을 아시아까지 확장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Answer 패트릭 ETF는 이미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명 이상이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외국학생들 중 대부분은 유럽 출신이며, 북미주에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젠 아시아권 학생들을 맞이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아시아권 학자들과 학생들을 맞이하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ETF는 학문적으로 준비되고 적절한 위상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써 왔으며, 이제 그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권 학생들 중 특별히 유럽의 역사와 기독교, 고전 신학, 그리고 유럽 내 선교 이슈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ETF에 관심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Question 최 **특별히 교수님의 전공이 리더십을 연계한 기독교 윤리라고 들었습니다. 이 주제는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례로 교수님의 전공분야를 아시아적 맥락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Answer 패트릭 이 학교의 총장으로서 저는 구약과 교회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저는 윤리학 교수로 리더십 윤리와 비즈니스 윤리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의 신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리더십 및 윤리 연구소(ILE: Institute of Leadership and Ethics)를 브뤼셀 지역에 설립한 이유도 이 때문이죠. 우리는 리더십 및 윤리 연구소를 통해 정책을 입안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적 관점을 통한 윤리적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환경, 은행, 기독교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사하는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공공영역에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가올 세계를 더 잘 준비하며, 현대 문화가 주는 도전을 신학 및 기독교적 사고로 통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uestion 최 **〈월드뷰〉가 갖는 주된 관심사는 기독교 세계관을 비즈니스 영역과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및 윤리 연구소는 이런 면에서 본지와 많은 부분 맥락을 같이하는 것 같군요.**

Answer 패트릭 맞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엔지니어 영역 등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는 매우 훌륭하지만, 이상하게도 개인의 삶을 신학적 성찰을 통해 살펴보면 때론 실용주의적이거나 피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신앙에 동일한 잣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과학, 사회과학 또는 법의 영역과 관련해서도 신학적 성찰을 위한 적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뤼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교회나 목회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리더십 및 윤리 연구소(ILE)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 설립된 것입니다.

Question 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nswer 패트릭 지난 해에는 자유주의 경제와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 관한 학술의 날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담 스미스에 관한 신학적 성찰과 자기 이익(Self-interest)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2주 후에는 리더십에서의 영성과 혁신에 관한 회의가 열리는데, 심리학자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하는 학제간 컨퍼런스입니다. 영성은 매우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는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영역에 우리가 기독교적 사고와 세계관을 펼치고 논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Question 최 **기독교 윤리에 관한 책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이 있나요?**

Answer 패트릭 처음에 제안 받은 것은 네덜란드어로 기독교 윤리에 관한 새로운 교재를 집필하고 네덜란드의 목회자 훈련 및 대학교에서 사용할 철학 윤리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번역본은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전문가인 동료와 함께 원서에서 약간의 변화를 준 『Matrix of Ethics』라는 윤리에 관한 개론서를 출간했습니다. 리더십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및 리더십 연구분야와 매우 관련이 많은 책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영역에 보다 초점을 맞춘 책을 집필할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보다 폭넓은 영역, 즉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구성될 것입니다.

Question 최 **한국에 처음 방문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인상이 어떠신지요?**

Answer 패트릭 단순한 예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국 교회가 가진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것이며, 가난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자 애쓰는 비전이 놀라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써 전지구적 필요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ETF 역시 희망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기독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를 향한 나의 기도와 바람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유럽이 한국 교회와 더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럽의 기독교적 전통이 약화되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회생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최 **ETF와 한국의 신학교 및 대학들간 국제 협력 관계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앞으로의 양자간 교류 및 협력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Answer 패트릭 한국 학생들 중 신학에 대한 유럽의 고전적 접근방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ETF의 신학 석사 과정 및 박사 과정을 추천합니다. 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들의 노하우를 ETF에 와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 외에 한국의 선교사들도 와서 자연스럽게 아시아와의 가교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가능하다면 교회가 그들을 파송해서 우리 학교를 돕는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Question 최 **한국에는 많은 기독 교수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과 전공이 통합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기독 학자들에게 학문과 신앙의 통합에 관해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Answer 패트릭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대한 철학적 모델을 찾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철학적 모델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 중 지구온난화와 생태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태학은 경제, 철학 그리고 창조와 인류학 측면에서 신학적 부분도 고려하게 됩니다. 기아 문제도 다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아 문제도 성경적 사고와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구약의 선지서들과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아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리더십 분야도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신학은 교회와 목회자들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목회에서는 물론, 바로 전 세계적 이슈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문제에 대해 그들만의 잘못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쪽 모두를 봐야 합니다.

Question 최 **벨기에에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까?**

Answer 패트릭 네덜란드에는 몇 개가 있는데 종합대학교가 아닌 단과 대학 수준입니다. 반면 벨기에에는 기독교 대학이 전무합니다. 큰 카톨릭 대학이 하나 있지만 기독교 대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학, 심리학 등 수많은 학문 분야와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와도 같은 벨기에에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Question 최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통합의 이슈와 기독교 교육에 관한 교수님의 비전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Answer 패트릭 먼저 우리의 동력원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어야 합니다. 학문과 이론적 도전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도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보이신 사랑을 지켜나가며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통합된 지식이 사랑이라는 제일 큰 계명 하에 있는 것입니다.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는 것이며, 공익을 위하는 길입니다. 유럽연합도 이와 매우 유사한 경우입니다. 타협의 과정이며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 일들이죠.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남한의 현 자세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북한의 무례한 도발적 행위에도 남한이 계속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외부의 공격적인 태도에 맞서 타협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고, 또 벨기에를 통해 한국도 배울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Answer 패트릭 그렇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남한의 현 모습은 훌륭한 본보기라고 생각하며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점을 배우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역시 자신만의 정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남한의 정책을 조심스럽게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논제이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Question 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관계와 협력을 맺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사역과 ETF,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Answer 패트릭 감사합니다.

Question 최 **맞습니다. 그것은 북한과의 관계와도 연결되는 것 같군요.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며 화해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벨기에도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 때로 분열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과 벨기에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보시는 지요?**

Answer 패트릭 벨기에에서 배울 점은 작은 영토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협상과 타협의 기술 역시 필요합니다. 타협은 종종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보하는 것이죠. 하지만 타협이야말로 사랑과 배려를 통해 이루어 내

복음주의신학원(ETF, 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Leuven) 소개
벨기에 복음주의신학원(ETF, Evangelische Theologische Faculteit, Leuven)은 성경적 리더를 세운다는 비전 아래 벨기에의 역사적인 대학도시 루번에 세워졌다. 유럽의 상황과 문제들을 성경 및 신학적 통찰로 인식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실제적인 사역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최용준 한동대 교수이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며 VIEW(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 대학원) 및 ETF(벨기에 복음신학대학원) 객원교수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웨스터민스터 신학원과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거쳐 남아공 포체프스트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퀼른한빛교회, 브뤼셀한인교회 담임목사와 KUIS(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였다.

상상해야 할 것을 상상하라

창조와 혁신을
부르짖는 문화 속에서
진정 우리가
상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왜 다시 상상력인가?!!

-거룩한 상상력을 위한 변명-

추태화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문제는 분별력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문제는 … 이다"가 그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문제는 경제다", "문제는 안전불감증이다", "문제는 과욕이다", "문제는 소통부재다" 등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이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정체성(identity)의 혼란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다중적 인격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세태. 남성과 여성이 유니섹스라는 미명 하에, 기호와 인권이라는 주장 하에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시대. 여러 종교가 뒤죽박죽 혼합양상에 접어들고 진리와 비진리가 하구에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듯 그렇게 뒤섞이고 있는 영적 상황. 늑대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슬금슬금 기어들어 오려는 미혹의 시대.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답해야 할 것 같다. "문제는 분별력이다." 그렇다. 이 어지러운 세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롬 12:2). 어두운 숲에서 살아나가려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면 늪에 빠질 수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다. 시대정신(Zeitgeist)의 미망에서 살아나오려면 진리로 옷 입은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춤추는 상상력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을까. 그동안 발전과 진보를 추구해 온 인류는 이제 오히려 가치관의 무중력 상태에 진입해 중심을 잃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서 상상력에 말을 걸어본다. "문제는 상상력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상상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상상력이 문제라는 말이다. 우리의 화제는 이 문제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일찍이 인간의 도구화를 경고한 이들이 있었다. 1930년대 결성된 독일의 프랑크푸르크 학파는 이성의 도구화를 간파했다. 인간의 이성으로 계몽이 시작되었고, 계몽주의 운동이 인간을 허망한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억압, 미망에서 해방시켰지만,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성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이성이 오히려 인간을 비인간화하는데 악용되기에 이르렀다. 인간의 비극적 한계상황이다.

상상력 역시 이성의 길을 걸었다. 상상력은 인간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비전을 갖게 하여 자칫 퇴보할 수 있는 문명과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인류 문명을 녹슬지 않게 하는 윤활유가 바로 상상력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도구화, 왜곡, 사유화되더니 끝내는 사악하고 천박한 유혹을 부추기는 죄의 길로 접어들었다. 현재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범람하는 상상력에서 찾을 수 있다. 17세기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로 인식의 시대를 열었다면, 문화홍수 시대인 오늘날은 "나는 쇼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또는 "나는 상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대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상상력이 정당하고 합당한 것일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고전 6:23) 그렇다. 오늘날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시대이다. 상상이 도발적이건 퇴폐적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인권이자 자유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이 문제이다. 모든 상상이 가하나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상상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상상력은 사람 안에서 나오고 사람에게로 들어간다. 상상력이 난무하고, 상상력이 맴몬니즘과 결탁되어 있다. 상상력이 죄악 된 마음 안에 있는 것과 섞일 때 상상력은 가공할 요물이 된다(마 15:19). "그래서 상상력은 구원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baptized imagination, R. Lyken) 상상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구원의 기쁨, 진정한 평화와 공의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상상력

성경은 인간 존재에 대해 결정적 단언을 내린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homo imago Dei)이라는 것이다. 이보다 더 인권을 높여주는 증거가 또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유사한 속성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창 1:27, 28).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표현하였다.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상상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상력은 은혜의 일부, 즉 하나님의 선물로서 사람의 사람됨에 포함되어 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꿈꾸고 이상을 현실화한다. 상상력이 내재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상상력은 창조 당시 인간에게 부여된 신기한 능력 중 하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심이라."(개역성경, 시 139:14)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상상력을 소유하고 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다. 상상력은 인간의 잠재능력 중 하나이다. 나아가 상상력은 인간의 재창조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바꿔 본다면 어떨까. '내 아버지께서 상상하시니 나도 상상한다.' 어떤 신학자는 '창조는 하나님의 상상'이라고 표현하였다. 하나님이 우주를 상상하시니 우주가 생기고, 해와 달을 상상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곧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해석이다. 상상은 신적 능력의 표상이다.

상상은 단순한 공상(fancy)이 아니라 의지와 인격의 표현이다. 상상력은 전인격의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상력은 뇌의 기계적 기능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상상력은 이성과 감성을 연결하고, 내면과 외부를 통합하므로 새로운 세계를 창출하도록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단이다. 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롬 4:17)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공유에서 기인한다. 상상력은 신적 권능의 유비(analogia)로 이해될 수 있다.

상상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의 어느 부분에 계시를 인식하게 하실까. 다시 말해 선지자들이 비전(vision)을 인식하는 과정에 인간의 어떤 기능이 작동하게 될까. 상상력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읽게도 하시는 과정에서 이 모든 감각은 상상력에 와서 통합된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목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선지자들은 주의 영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다. 상상력은 하나님의 계시와 선지자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나아가 계시와 성도의 매개체이다. 상상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는 그저 글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글자로 쓰여진 계시가 생동감 있는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라는 매개를 통해 재현될 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이 상상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끄셨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단연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일 것이다. 이 연설은 그 어떤 분명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 아닌가. 그렇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이다(사 11:6-8). 수천 년 전 존재했던 선지자의 비전이 킹 목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상력 덕택이었다. 킹 목사님의 상상력이 작동하였기에 이사야서가 기록을 넘어 사회 개혁이라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상상력의 공유는 신앙 영역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런데 지금의 성도들은 어떠할까.

상상력의 결핍이 부른 혼란

상상력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한국 사회를 예로 들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은 어떤 이미지를 불러 일으켰을까. 대부분 영성과 연관되어 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 믿음의 조상들에게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호렙 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시온 산 등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산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상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산마다 성황당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의 상징들이 세워지고, 지금은 값비싼 이국브랜드 아웃도어가 경쟁적으로 산 본연의 이미지를 가리고 있지 않은가.

강은 또 어떠한가. 선지자들은 강을 바라볼 때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암 5:24) 물이 흔하지 않았던 유대 땅에 요단 강처럼 맑은 물을 실어 나르는 물줄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서 사해를 살리는 생명수로 보였던 것이다(겔 47장).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지난 정권부터 시작된 4대강 논쟁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정쟁을 양산하고 있으니, 강을 바라보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강의 이미지는 상상만으로도 머리 아픈 주제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상상력은 한 사회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 속에 살아 움직인다.

상상력은 개인으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한다. 때로는 거대한 은유로, 때로는 크고 작은 상징을 생산하면서 사회 구성원 속으로 파고든다. 상상력이 특정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면 그것은 필경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생태적으로 자유롭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을 장악한다면 국민 위에 군림하기 쉽다.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시민의 상상력을 조작하려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상상력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부정 혹은 긍정의 이미지로 착상되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극단적 예를 하나 더 든다면, 한강 다리는 어떤가. 한강은 일제 시대 때 수탈의 도구로 인식되다가, 6 · 25 전쟁 이후 기적의 다리로 탈바꿈한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 그것이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들

어 부정부패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수많은 피의자들이 서초동 검찰청으로 불려가다가 한강 다리에 이르러 몸을 던지는 사건이 터진다. 시민들의 뇌리에 한강 다리는 서서히 기적이나 발전 등과는 결별하고, 의혹, 비운, 죽음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착상되어 간다. 결국 한강 다리 여기저기에 자살예방을 위한 장치들을 설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믿음과 상상력이 만나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한국 기독교는 논리적이 되었다. 신앙에 있어 이성은 중요하다. 그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이성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나온 농담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만 살아있기 때문이다." 성경공부, 제자훈련, QT 등 너무 많은 것들이 일방적인 질의 · 응답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성경 독자로서 이성적 자아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 말씀의 감성, 상황의 재연을 느낄 틈이 없어지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느끼고 상상해서 나의 것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모든 성도들은 직선적, 돌발적 "믿습니까?!"에 추궁당한다. 당장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로 낙인찍히기 쉽다.

앞에서도 거론했듯 상상력은 믿음 생활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 그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신앙 때문에 상상력이 오히려 감퇴한 경우는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어떤 안티기독교 단체는 '기독교가 아동의 상상력을 저해한다'는 이론으로 아동의 성경공부 교육을 중지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교 교육처럼 주입식 방법으로, 교사 중심의 신앙 교육에 골몰했던 과거 방식을 바꿔야 한다. 암기식 신앙은 미래가 없다. 믿음에 대한 명제적 선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상상하는 내면에 믿음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도 전인교육, 특기적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면, 청소년 신앙교육에서도 시급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상상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말이다. 믿음 안에서 이성과 감성이 만나도록 상상력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성인 성도들에게도 상상력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신앙생활 수십 년이면 나름대로 연륜이 쌓인다. 순기능적인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역기능적 요소도 부인할 수 없다. 상상력이 결핍된 경우라면 '꼴통보수'라는 소리를 듣기에 최적이다. 성경의 다양한 상황이나 남의 처지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신앙의 편집증후군이 발생하게 된다. 한국처럼 수천 갈래 교단, 교파로 찢겨진 기독교 상황은 어디에도 없다. 교회 연합이 왜 이처럼 어려운가. 연합에 대한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이, 교역자들이나 평신도들 모두가 주 예수님의 몸 된 지체(고전 6:15)이며 줄기의 가지(요 15:5) 요 나라(벧전 2:9)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주님 재림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 하나 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계 21:9), 어찌 연합이 그리도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

상상하는 믿음은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상상력을 주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일반은총으로 상상력을 부여하셨다. 인류 문명의 진보도 여기에 기초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은총, 특별은총이 있듯, 상상력에도 특별한 상상력이 있다. 거룩한 상상력이다. 예를 들면 우리 동시대인들이 교회 첨탑의 십자가를 보며 폭풍 결에 언제 떨어질까 불안해하는 그런 류가 아니라, 거룩함을 느끼고 구원을 고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상력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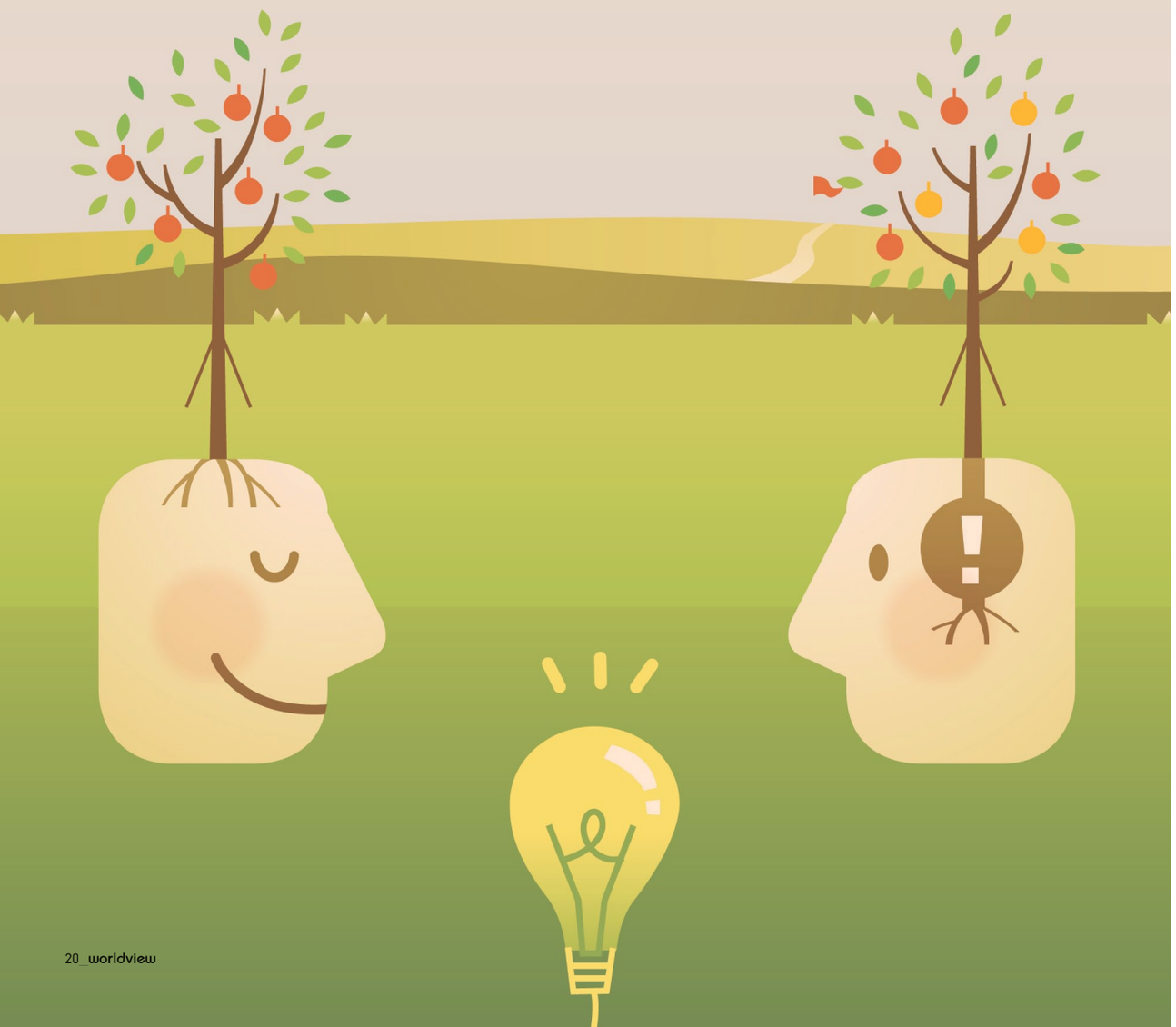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러한 거룩한 상상력을 이 땅에 감염시키는 데에 있다. 예수께서 꿈꾸시던 그 나라와 그 의가 상상력을 통해 열방, 만백성에게 전해져 서로 공유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문화의 생명이다. 기독교 문화는 복음으로 이 시대 시민들의 상상력에 세례를 주는 행위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님의 천국 상상력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상상하시니 우리도 상상하노라.'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상상을 펼쳐 나가야 한다. 사회와 국가, 민족과 세계를 위한 거룩한 꿈을 상상할 때이다.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antelao@hanmail.net)

상상의 차이, 낙원을 만들다!

– 폴 고갱과 빈센트 반 고흐의 경우 –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문화예술분과장)



예술이란 흔히 인간적인 창조 결과로 개인의 특유한 인간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그의 정신과 통찰력,감정,미적인 감각, 상상의 총화로 일컬어진다. 그중에서도 제일 예술형성에 중추적인 요인을 말한다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림을 통해 그 사람의 세상과 인생에 대한 철학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문자나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림도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림에 내재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속성'으로써 자신이 말하려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미술사학자 로크마커(Hans Rookmaaker 1922–1977)는 한 예로 네덜란드 출신의 반 호이연(Jan van Goyen)과 고전적인 전통을 따른 프랑스의 푸생(Nicolas Poussin)을 든다. 종교개혁의 영향력을 받은 반 호이연의 단순한 풍경화에서 실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보인 반면, 푸생의 고전적인 풍경화는 그가 동경한 아테네를 본뜸으로써 위대한 인간의 업적, 영웅적 공로 등을 나타냈다고 보았다. 로크마커는 작가가 어떤 종교적 배경 하에서 활동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상에 의존하는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반 호이연의 예술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인해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 세계를 표현했다면, 푸생의 예술세계는 희랍 고전에 나오는 신화적 세계를 이상화시켰다고 보았다.

이처럼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 예술세계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라진다. 예술은 단순히 장식적인 기능 또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추구를 넘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의미와 도래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되새겨보는 의미를 지닌다. 이때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가 주요 사안으로 대두된다. 만일 어떤 예술가가 진리의 세계관속에 있다면 넓고 깊은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며, 탐탁치 못한 세계관에 접목되어 있다면 얼마 못가 침륜해버리고 말 것이다. 현대미술이 그 숱한 사조와 담론에도 불구하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피폐하였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바른 관점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즉 미술작품의 구성하는 내적 요인, 즉 테크닉, 양식, 구성도 중요하지만 넓게 보면 어떤 정신적 기반위에 서 있는가가 예술의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로크마커가 앞에서 제시한 해석틀을 참고하여 모더니즘 회화의 기틀을 마련한 폴 고갱(Paul Gauguin 1848–1903)과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를 통해 서로 다른 배경에서 키워진 정신관이 얼마나 다른 작품세계를 낳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후기인상주의의 대표작가인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은 동시대 작가이며 프랑스 남부 아를르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동료이자 예술적 경쟁자였다. 그들은 문명화된 사회를 멀리하고 '예술의 상징성'을 추구하는 등 비슷한 점도 있었다. 종교적으로 보자면 고흐는 목사였던 부친 테오도루스를 따라 목회자가 되고자 했으리만치 독실한 기독교환경에서 자랐고, 고갱은 가톨릭 학교를 나오고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리만치 꾸준히 종교에 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드보라 실버만(Debora Silverman)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신성을 매개하는 회화'(painting as mediator divinity)를 추구한 예술가들로서 죽을 때까지 종교에 대한 관심을 회화의 근간으로 삼았다. 하지만 한 사람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화가였고 다른 한사람은 가톨릭을 배경으로 하는 화가였다.

종교적 배경이 다른 만큼 예술을 대하는 인식도 확연히 달랐다. 고흐가 현실에서 소재를 취하고 그 자신이 고된 농부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는 일꾼으로 여겼다면, 고갱은 관념에서 소재를 취하고 그 자신을 미지의 세계를 이끄는 개척자로 여겼다. 고흐에게 있어 현실의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계라는 인식이 강했고, 예술가는 별세계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농부와 같이 땀흘려 일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으로 사람으로 인식한 반면, 고갱은 가톨릭의 교육자 펠릭스 뒤팡루(Felix Dupanloup)의 가르침을 따라 예술에 있어 '반자연주의 관념론'과 '내적 환상'을 표방하고 예술가를 예언자와 같은 존재로 받아들였

다. 고흐는 평소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세계에 감탄했기 때문에 실재에 충실한 그림, 주관을 보태더라도 색과 터치를 가미하는 수준이었다면, 고갱은 그런 의식이 약했기에 자신의 환상이나 상상의 결과로 얻어낸 추상을 선호했다. 고흐의 회화가 현실의 해석이 관건이었다면 고갱은 어떻게 하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그런 예를 우리는 두 사람의 야심만만한 말년의 대표작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낙원의 두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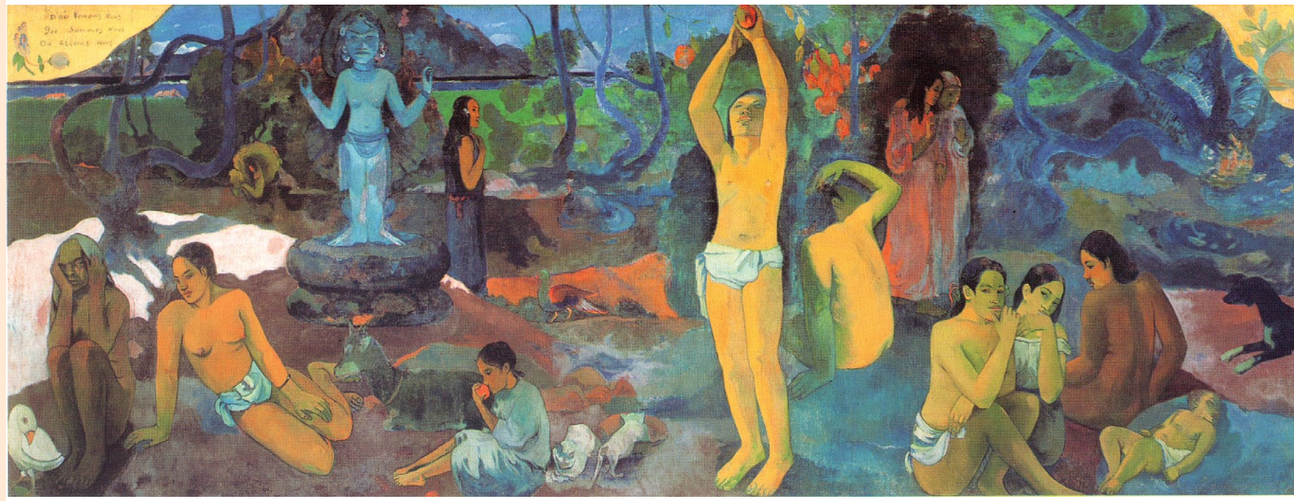
폴 고갱은 원시세계에 대한 이상으로 문명세계를 저버리고 타히티에 정착하게 된다. 그러나 그곳의 정착은 쉽지 않았다. 고갱은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절망의 늪에 빠졌다. 파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지만 실패의 쓴맛을 보았고 열대림에서 만난 어린 정부들과의 방탕한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그를 맞아주는 것은 생의 환희가 아닌 빈곤과 고독, 좌절과 병마였다. 절망에 내몰린 고갱이 마지막 유언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달린 것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1897)였다.

가로 4.2미터의 이 대작은 신생아의 출생부터 노인의 죽음까지 삶의 여정을 보여준다. 화면 우측 귀퉁이의 갓 태어난 아이는 고갱이 설정한 인간의 시초이며 화면 중앙의 신체가 건장한 여성은 장성한 어른의 모습이며, 좌측 귀퉁이의 노인은 죽음을 앞둔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각각 파노라마처럼 펼쳐간다. 고갱은 갓난아이가 성인을 지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구도를 설정한 후 그 사이에 여러 장면을 삽입함으로서 '인간의 드라마'를 서사적으로 다루고 있다.

화면은 크게 전경과 중경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전경, 그러니까 앉아서 음식을 먹는 아이라든지 신생아 곁을 지키는 보모들, 그리고 오리와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이 행복한 나날을 상징한다면 중경은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사후세계의 여신 히나(Hina)를 통해 불길한 여운을 남긴다. 마오리인들의 민속신앙에서 히나는 생명의 탄생과 재생을 관장하는 사후세계의 여신으로 고갱은 이것을 지극히 양식화된 조각상으로 표현하였다. 고갱은 "우상은 우리들의 원시적인 영혼의 상징이고, 인간 개개인의 근원이나 미래를 대면하면서 느끼는 막연함, 즉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고뇌에 위안이 되기도 한다네"(1899. 3)라며 단순한 이국풍경의 하나가 아닌, 우주의 미스테리를 풀어줄 지혜의 상징으로 등장시켰음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그는 열매를 따는 여인을 통해 원죄의 문제를 다루고, 그 옆에 어둠속의 자주빛 두 인물을 통해 실낙원을 나타내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갱의 다음과 같은 말이다. "그늘에서 어두운 색의 옷을 두른 두 인물이 선악과 나무 근처에 서 있는데 그들은 선악과로 인해 고뇌의 색으로 물들어 있다네. 이에 비해 순수한 인물들은 더럽혀지지 않은 자연, 즉 에덴동산에서 행복에 몸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어"(1901.7) 고갱은 실락원의 문제를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이해하지 않고 파라다이스에선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식으로 풀이하였다. 즉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사람과 원시의 나부를 대비시켜 그리스도의 구속없이도 인간이 행복한 나날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작품을 통해 볼때 고갱은 가톨릭 교육을 받고 성장했음에도 성경적인 가르침보다는 자신의 철학을 늘어놓고 옹호하는데 주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히티는 오직 화폭위에만 존재하는 가공의 에덴동산임을 부인하기 위해 좀더 분명한 어조로 자신이 설계한 인생관을 변론하였는지도 모른다. 이와 대비되는 작품이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다. 〈별이 빛나는 밤〉을 제작하기 몇 개월 전 반 고흐는 동료 화가 베르나르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용솟음치는 과거의 추억, 그 무한의 향수, 그런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나를 유혹한다네. 그 상징이 씨 뿌리는 사람과 낟가리지. 그러나 도대체 언제쯤 나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그릴 수 있을까?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1888.6.18)



폴 고갱,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1897

그가 언급했듯이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리길 고대했다. 그러나 생레미 요양원에 입원한 이후로는 그는 한동안 요양원 안에서만 갇혀 지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창틀 너머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자리잡은 별들을 보게 되면서 뜻밖의 광경과 조우하는 기회를 맞았다.

그림은 크게 세 부분, 즉 상단의 하늘과 하단의 마을, 그리고 그 둘을 잇는 싸이프러스 나무로 구분된다. 그의 작품으로는 드물게, 자연에 대한 변형을 심하게 꾀하였는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색채와 형태를 자유롭게 상상해서 표현하였다. 밤하늘에는 두 개의 커다란 소용돌이가 서로 감겨있고 열한 개의 커다란 별들이 반짝이는 반면, 어둠이 내린 마을에는 가옥과 교회종탑이 묘사되어 있다. 고갱과 베르나르같은 화가들이 선호하는 분할주의(Cloisonnisme)를 버리고 평소 흠모했던 화가 몽티셀리가 즐겨 사용한 방식대로 여러 물감을 쌓아올려 두툼한 물감층을 조성하는 임파스토(impasto) 기법의 작품이다.

하늘과 무한에 대한 그리움은 늘 고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같다. 여동생 빌헬미나(Wilhemina)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 시인 휘트먼(W.Whitman)의 시들을 읽어보았니? 그는 이 세상위로 펼쳐진 별빛 비치는 커다란 둥근 하늘을 본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며, 이 세상 위에 자리잡고 있는 영원이다."(1888.8월)고 했다. 지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가 하늘을 응시했다는 것은 휘트먼처럼 '초자연적인 존재'에 주목했다는 뜻이 된다. 아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에 안기려는 마음을 토로한 것이 아닐까.

인생 최대의 기로에서 희망과 그리움을 말하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별들로 희망을 표현하는 것, 저녁노을 빛으로 영혼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결코 그럴듯한 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겠니?"(1888.9.3) 그는 요양원에서 기나긴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면서 창살 틈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을 지켜보며 위로를 받았다.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그는 점점 내적인 신앙에 밀착해갔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교를 필사적으로 갈구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면 밖으로 나가 별을 화폭에 담는다"(1888.9.29)고 썼다. 렘브란트(Rembrandt)나 야곱 루이스달(Jacob van Ruidael), 코닝크(Konnick)와 같은 네덜란드의 선배화가들이 그랬듯이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하늘의 도성'에 이르려는 마음을 실어냈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반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1889

참된 예술의 조건

고갱이 아르카디아를 찾아 발이 부르트도록 헤매고 다녔다면, 고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신의 심령속에 고이 간직했다. 고갱은 이 땅 어딘가에 낙원이 있을 거라는 신념을 버리지 않은 이상주의자였다면, 빈센트의 그림은 이땅에는 영원한 거주지는 없으며 우리는 단지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계승하였다.

세간의 오해중 하나는 고갱이 '엄청난 종교화'를 남겼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초기부터 기독도상을 차용한 그림을 다수 제작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그에게 기독도상은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의 예술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다. 물론 그가 기독교 도상을 이용한 것은 〈황색그리스도가 있는 자화상〉에서처럼 자신이 희생양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거나 〈설교후 환상〉처럼 옛 교회가 주는 낭만적인 분위기에 도취된 까닭도 있었지만 어떤 경우든 고갱은 더 깊고 넓은 세계, 즉 하나님의 주권이나 창조세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고흐는 고갱과 달리 어떤 재래의 기독도상을 차용한 적이 없었다. 어떤 특정한 양식을 추구하는 상징적인 주제속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진실에 대한 강한 열망속에서 그는 땀 흘리며 밭을 경작하는 농부들에게 따듯한 애정을 쏟았는가 하면 장엄한 평원과 운하, 과수원과 밀밭, 올리브산, 싸이프로스, 들꽃들, 해바라기 등을 통해 자연이 갖는 상징성을 깊이 있게 탐구해갔다. 〈별이 빛나는 밤〉의 경우 역시 하나님의 엄위(嚴威)를 느끼게 해준다. 그에 있어 자연은 무언의 계시이며 암호였던 셈이다.

아무래도 두 사람을 결정적으로 구분짓는 것이라면, 그들이 취한 종교관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명 모두 기독교적인 색채가 뚜렷했으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었다.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와 존 번연(John Bunyan), 그리고 19세기 네덜란드 모더니즘 신학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고흐는 한때 굴곡은 있었지만 경건한 신앙의 물줄기에서 크게 벗어남이 없었다면 고갱은 달랐다. 뒤팡루의 자유주의 가톨릭시즘의 영향을 받은 그는 '반자연주의 관념론'을 사상의 축으로 삼아 혼합주의적 성향을 띄었다. 어느 한 교리에만 심취한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장점을 두루뭉술하게 취했다.

한때 동질감을 느꼈던 고갱과 고흐는 생애 말년에 이르러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고갱이 '열대의 자연'을 지상낙원으로 바라보았으나 자신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 버렸음을 깨닫고 나서 쓸쓸한 말로를 보여주었다면, 고흐는 일생 최대의 고비속에서도 자신에게 도래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 물론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고 우리는 그의 선택을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를 비판하기에 앞서 그가 치명적인 질병을 얻어 괴로워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말하자면 비극적인 생의 마감으로 인해 그가 추구했던 예술세계가 흐려지거나 가려져선 안된다는 말이다. 어쨌든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작가의 예술관과 작품 주제와 양식이 결정되고 작품제작수법까지도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다.

두 화가가 살던 시절은 지금보다는 비교적 단순한 생활구도였지만 오늘날에는 영적 분별력(spiritual discernment)을 갖지 않고는 좀처럼 상황 파악이 어려운, 정말로 시계 제로의 환경속에 살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참되고 진실한 것보다는 뭔가 떠들썩하고 그럴싸한 것에 관심이 쏠리게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영적으로 '허무한데 굴복하는'(롬 8:20) 예술을 주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터이다. 새로운 것이라면 무턱대로 추종한다거나 물신 숭배의 경향은 현대미술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것은 예술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올바른 정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데서 생긴 결과가 아닐까. 이럴 때일수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활동에 기독교 정신이 스며들게 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아무리 소질이 뛰어나다고 해도 올바른 세계관에 접목되지 못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어려울 것이다.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창조적 상상력을 실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속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투영되어 있는지 자문해보는 것보다 절실한 물음은 없을 것이다. 반 고흐가 대자연을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물로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며 그 소망을 〈씨뿌리는 사람〉속에 담아냈듯이 말이다.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비유로 소통하고 상상력으로 창조하라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부 교수, 영화평론가, CMCA 운영위원)

비유-지혜의 언어

파리의 미라보 다리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를 맞추어 한 푼 달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그는 '앞을 못 보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적혀있는 푯말을 자신의 목에 걸고 있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시인이 그 거지를 보고 다가가서 물었다.

"여보시오 거지 양반, 사람들이 적선을 잘 합니까?"
"웬걸요. 오늘 하루 종일 앉아있었는데도 앞에 있는 동전 몇 개가 다인걸요."
푯말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시인은 푯말을 뒤집어 몇 자 적은 뒤 이대로 두라는 당부의 말을 남긴 채 자신의 길을 재촉했다. 며칠 후 시인은 다시 미라보 다리의 거지에게 다가가 물었다.
"요즘은 벌이가 어때요?"
그를 알아본 거지는 매우 기뻐하며 대답했다.
"선생님이 뭐라 쓰셨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저에게 동전을 잘 주는 걸요!"
시인은 빙긋이 웃으며 가던 길을 갔고, 거지의 목에 걸린 푯말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찬란히 봄은 오고 있건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상상력-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홍세화 씨의『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에는 프랑스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
오래전 프랑스에서 국제 아동그림대회가 열렸을 때의 일이다. 한국에서도 전국대회를 거쳐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학생을 선발해서 이 대회에 참가시켰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미술대회는 대개 고궁이나 공원에서 열리는 것이 보통이고, 그림의 내용 또한 눈앞의 사물을 그리는 일이 대부분인지라 한국 학생은 이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회가 열린 대회장은 뜻밖에도 어느 큰 강당이었다. 처음에는 석고 데생을 하려나보다 생각했지만 석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았고, 대신 음악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한국 학생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프랑스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한국 학생은 붓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대회장을 나오면서 엉엉 울었다는 얘기다. 그 학생은 드뷔시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 느낌을 표현하라는 그림대회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훌륭한 창작자의 공통점-비유와 상상력의 결합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는 프랑스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지만, 봉 감독의 뛰어난 상상력과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비유를 통해 빛을 발하는 화제작이다. 그는 일찍이 〈괴물〉(2006)을 통해 미군의 독극물 한강방류사건에서 기형적 괴물을 탄생시키면서 현대 한국사회를 풍자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설국열차〉에도 고스란히 살아있다. 봉 감독이 한국영화 최다관객(1301만 명) 동원의 기록을 가진 장본인이면서, 비유와 상상력을 통해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비유는 세속적인 사회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문화 소통의 방법이며, 상상력이라는 문화창조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소통으로서 비유와 상상력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실린 천국에 관한 각종 비유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 문화를 비유에 사용함으로써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들고 끝내는 제자들의 이해를 촉진시키는데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마 13:51). 비유가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은 신앙을 역동적으로 만든다. 개럿 그린(Garrett Green)은 일찍이 자신의 저서인『하나님 상상하기』(Imagining God: Theology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에서 신앙에 있어 상상력의 역할과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가 말하는 종교적 상상력이란 하나님을 '형상화' 하는 것(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류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

님을 상상하는 것(어떤 패러다임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패러다임적 상상이란 모사(模寫)적이 아니라 유비(類比, analogy)적이다.[1)]

현대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영화를 만든다면 성경의 진리가 유비적 관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패러다임적 상상이 매우 유효할 것이다.

판타지와 상상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는 자신의 어린 조카를 위해 『나니아 연대기』라는 연작 동화를 썼다. 전체 7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네 명의 어린이들이 나니아 왕국을 여행하는 모험물 형식의 판타지 동화다. 이 동화에는 마법의 옷장이 등장하고 마녀와 사자 그리고 반인반수(半人半獸)의 각종 신기한 존재들이 등장한다. 마녀와 마법이 등장한다고 혹시 거부감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접근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마법이란 상상의 세계를 열어주는 문고리와도 같은 것이며, 마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하는 아슬란이란 사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이다. 그 문을 여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마법의 신비함에 끌리기보다는, 루이스의 용어를 빌리자면 '더 큰 마법'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바로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지이다. 루이스의 이 동화를 읽은 아이들은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를 비유로 전해 듣는다.

1) Green, G (1989). Imagining God: Theology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장경철 역(1996)『하나님 상상하기』. 서울: 장로교출판사. 141쪽

판타지는 현실 세계를 넘어서서 상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허구의 예술이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난 모양만 허구일 뿐, 판타지는 현실적 인간의 삶과 세상에 대한 진실이나 소망의 또 다른 표현이다. 교회가 흔히 판타지에 대해 비판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묘사하여 관객을 현혹시킨다는 것인데, 현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상상력의 결과로 나타난 허구 그 자체를 경원시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진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우리 주위를 살펴보자. 어린아이들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의 역할을 정하고, 풀잎과 흙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삼아 소꿉놀이를 하며 노는 모습을 보기란 어렵지 않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바로 상상력에 힘입은 것이며, 그 안에는 집안에서 보아왔던 가족의 현실을 모방하고 나름대로 재창조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든 물건들은 모두 두 번 창조된 것들이다. 첫 번째는 제작자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 상태로 한번 만들어지며, 두 번째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실물로 재현된다. 이때 머릿속에 구성된 것은 상상의 영역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물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상상이 창조로 가는 매우 중요한 길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거룩한 상상력이 관건이다

상상력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명백한 증거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상상이란 자신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기독교가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 허구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룩한 상상이 현실적인 삶에서 창조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간다. 즉, 상상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고유의 기능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반지의 제왕〉의 원작자인 톨킨은 이렇게 말한다. '판타지란 가장 높고 순수한 형태며, 예술과 신학과 인간의 기본 욕망이 만나고 교차하는 장이다.' 또한 그는 '판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대면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상상력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총체적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상력에서 말미암은 그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잘못된 상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가정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상상력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난 사람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실행할 때 거룩한 상상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법이다. '기독교세계관과 거룩한 상상력',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는 열쇠라 할 수 있다.

강진구 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창조적 상상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동훈 (디자인집 아트디렉터)

죽은 창의성과 참된 창의성 (지금은 창의성의 시대인가?)

한석봉의 어머니가 한두 번 부러웠던 것이 아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어둠 속 단판 승부는 어머니의 떡 썰기 내공으로 싱겁게 끝이 났다. 요샛말로 '고유수용감각'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떡 썰기를 어찌 당하랴. 항상 새로운 디자인의 압박에 시달리는 필자나 마감일을 앞둔 작가에게는 미안하지만, 가끔 '한석봉 어머니의 삶'이나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식 하루'가 더 보람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창작의 길을 오랜 세월 걸어온 사람들에게는 〈블링크〉에서 말하는 그들만의 통찰력이 생겨 일상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들에게는 최근 불고 있는 창의적 사고, 창의적 인재양성, 우뇌형 인간 등의 바람이 나름 반가울 만도 하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달갑지 않은 방향으로 꼬여가고 있는 듯하다. 선거공약, 주민센터 문화강좌,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 이르기까지 창의, 창조, 혁신, 상상 등의 용어가 남발되고 있다. 딱히 창의적인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일까.

용어는 과용을 넘어 오용되고 있다. 주입식 사교육 기관에서 '몰입식 교육'을 표방하며 내놓은 수많은 교재와 수강코스 전단지 등. 몰입(flow) 이론을 펼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한국의 이러한 실태를 본다면 무어라 할지 상상만으로도 열이 난다. 한마디로 '학문의 키치화'가 아닐까 싶다.

아래 용어들이 이해되는가?

'혁신경영지원팀', '창조관리운영팀', '혁신당원대회', '청소년창의토크콘서트', '창의지성인재개발' 등. 여기서 '혁신', '창조', '창의'를 삭제한다고 크게 의미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전에는 이런 단어들이 이들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좋다. 여기까지는 '한국화'로 인정할 만하다. 그것이 시장의 상술이든 정치적 순발력이든 '한국의 현지화'로 웃어넘길 만하다. 그러나 상상, 창의 등의 개념에서 그리스도인이 민감하게 살펴야 할 것이 있다. 부족한 필자의 식견은 이렇다.

첫째, 기독교세계관은 창의성의 시대에 반한다는 의식의 일반화. 쉽게 설명하자면, 절대적 가치를 맹신하는 기독교 사상은 사고의 유연성이 없고 타인의 가치관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둘째, 창의성을 얻기 위해 학문 간 통섭이 요청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주체학문이 '무신론적 과학'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여전히 '과학의 신화'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창의적인 과정과 그 결과물에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 면죄부를 주는 (특히 문화, 예술 영역에서) 사회적 통념의 확산이다.

즉, 기독교인들은 내부적으로는 이원론적 사고를 해결하고, 밖으로는 기독교가 결코 창의성을 억제하는 시대착오적 종교가 아니며 과학과도 대척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나아가 기독교 윤리야말로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죽은 창의성'이 아닌 사회공동체를 위한 참된 창의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필자는 리처드 도킨스나 최재천 같은 무신론 과학도의 허구성과 저작 의도를 분별할 입장도, 능력도 안되나 소위 한류 영화나 게임 등 창의적 콘텐츠를 생산할 때 그 콘텐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사회적 파장과 사회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결과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국을 먹여 살릴 문화 콘텐츠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에서 발로된 이상한 '애국심(?)' 또는 대중적 합의(과연 합의가 됐는지 묻고 싶다)가 축소한 한국의 게임물등급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에서도 드러난다.

창의성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도덕적 면죄부를 남발하면서까지 사모하는 창의성, 상상력, 창조성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향하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처럼 '거짓은 진리를 말함으로서 드러나리라'는 것을 일반은총의 영역에서 증명하고 싶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을 찬양하기 위해 창의성을 미끼로 끌어들일 생각은 없다. 다만 상상력과 기독교세계관 사이에서 객관성을 견지함으로써 카이퍼가 말한 '주님의 주권'을 단 한 뼘도 빼앗기지 않음을 드러내려 할 뿐이다.

창조적 상상력은 어디서 오는가?

어마빌레(Amabile)는 지식과 경험, 창의적 사고력, 내적 동기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3대 요소로 보았으며, 토렌스(Torrence)는 창의성은 사람의 순수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동일한 경우에는 동기가 핵심변수가 된다고 보았다.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되는데, 내적 동기란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힘이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의 즐거움, 만족감, 자기 기대, 가치의 확신 등을 들 수 있다. 외적 동기는 활동과 독립된 외부에서 주입되는 힘으로 물질적 보상, 승진, 점수, 상급 등을 들 수 있다.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주요 요인 중 내적 동기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부족한데, 여기서 주지할 것은 내적 동기는 '캐쉬를 물어오는 성과'보다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로 강화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역사에서도 증명되는데, 미하이는 19세기 산업혁명, 두 번의 세계대전, 지구 온난화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디자인 영역에서 모더니즘 디자인의 효시이자 교과서라 불리는 '바우하우스'의 출현을 예로 살펴보자. 산업혁명 이후 파시즘, 사회주의 등이 등장하던 정치적 혼란기에 그로피우스 등의 조형 예술가들은 윤리적 양심(또는 마음의 불균형, 에드워즈)을 경험하게 된다. 동시대 도시 빈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노동자들의 비인격적 근무 환경, 저질 생산품에 따른 삶의 질적 퇴화를 목도하고, 그들의 조형언어로 양심선언을 한 것이 바로 '바우하우스'라는 학교의 설립이었다. 이것이 '예술의 대중화'를 뜻하는 '디자인'의 근대적 탄생 배경이다. 이들은 히틀러에 의해 폐교 당한 후 영웅 대접을 받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디자인을 국제 디자인화 시켰다. 미하이는 '확실히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세상과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고 하였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교회, 나아가 세상과 유기체적 관계에 있음을 이중언어로 표현한 것 같지 않은가? 그러나 심리학자인 미하이도, 바우하우스의 설립자인 그로피우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동기부여와 사회적 가치에 대해 조금 더 들여다보자. 내적 동기를 통한 창의성은 '사회적 지능'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사회적 지능'이란 대인 관계에서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감정, 사고,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며, 관계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유용한 사회적 산물을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기술이다. '다중지능이론'의 창시자인 가드너는 타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업무 영역 속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대인 관계 지능이라 하면서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것은 '독창성'에만 개연성을 두는 일반적 시각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가진 창의성은 '관계성'에서 찾아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창의성에 '관계'의 특성이 '함의'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사회적 창의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 반 퍼슨은 창의성을 사회적 가치와 책임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기를 "인간이 처한 상황을 윤리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때 권력 구조에 갇혀 있던 책임감이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얼굴을 되찾게 된다. …인간은 창의성을 통해 권력 기계의 부품에서 벗어나 인격이 되며 비로소 우리는 책임성이 진실로 실현되는 사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창의성이 발휘될 때는 대부분 진입 장벽이 있는데, 반 퍼슨에 따르면 보통 변화를 싫어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자와 그 혜택을 누리는 자 모두에게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육은 능동적으로 변화를 제안하고 통합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게 한다. 소통을 통해 창의성이 발휘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다. '경청'이 화두가 되거나 '겸손'을 리더의 조건으로 보는 저서들이 지지받는 것도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사회적 지능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자들의 주장과 무관하지 않다. 요즘 같은 상대주의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기독교인의 세계 인식은 결코 시대착오적 가치관이 아닌 것이다.

참된 창의성은 참된 자유에서 나온다

좀 더 나아가서 앞서 지적한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창의성에 대해 말해보자.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려야 한다. 창의성을 높이려면 자유로워야 하는가? 자유로워야 한다면 그 자유는 자유로운 지식인가, 자유로운 삶인가?

기독교세계관에 따르면 '사고의 자유'는 '인간의 자유' 혹은 인간을 위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에 종속된다. 참된 창의성은 참된 자유에서 나온다. 참된 창의성은 '종교로부터의 자유' 같은 방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자유,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서 책무를 다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러니 창의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유는 (루터의 분별력을 빌려서 말하자면) 자기중심적으로 살려는 욕구에 종속된 노예적 자유가 아니라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세상을 책임감 있게 대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는 창의성이 절제력, 사회적 가치의 확신, 내적 동기로 향상된다는 심리학자들의 실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수세기 전 에드워즈나 어거스틴 같은 분들의 저서에서 밝혀온 진리의 파편에 불과하다. 참된 미덕이란 보편 존재에 대한 호의에서 나온다며 '미'와 '덕'을 통전적으로 설명한 에드워즈의 주장이나 그보다 앞서 '존재와 선의 일치'를 가지는 아름다움을 논한 어거스틴에게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육학자도 심리학자도 아닌 목회자요 신학자였다.

즉, 진리를 아는 사람이 사랑의 판단력을 소유하게 되며, 그의 의지는 공동체의 가치를 향한 창의적인 열매

를 맺게 된다. 사랑으로 소명을 지키며 창의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주체가 누가 되든지 말이다.

창의성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하는가?

그러면 창의성은 누가 평가할까? 시대정신의 잣대와 우리의 창의성에 대한 잣대가 다르니 분명 그 평가도 다를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과 문화 곧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자.

창의성을 평가하는 시대정신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흐마니노프는 당대의 비평가들에게 혹평을 받았다. 또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 탑과 퐁피두센터는 파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일으키는 지구촌 테라급 문화 상품이라는 것 외에 건축 당시 모두 파리 시민의 격렬한 반대와 비아냥을 견뎌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듯 역사는 당대의 비평가나 대중의 평가가 결코 신뢰할만한 것이 아님을 교훈한다. 그럼에도 오늘날은 새로운 발상, 상상력이 발휘되면 우상처럼 찬사를 보낸다. 창의성이 없는 자의 열등감일까? 아니면 체스터톤의 말대로 경이로움에 찬사를 보내는 인간의 고유한 갈망일까? 미디어 콘텐츠는 조금 더 역겨운 창의성을 떠받든다. 기괴하게 꼬인 인생으로 근친상간에 빠진 '올드보이', 중년의 청부살인자와 10대 소녀의 사랑을 다룬 '레옹' 등은 상상과 설정의 참신함(?)으로 아낌없는 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 평가에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창의성은 무엇이 다른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우리의 창의성은 무엇이 다른가? 감사하게도 우리의 분별은 그들의 요구와 달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위에 서 있고 그 위, 즉 성경의 빛 아래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 영역에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특별히 문화사역자들이나 문화사역을 꿈꾸는 이들은 기독교세계관의 빛 아래서 등가변형된 이중언어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책무가 있다. 다만 기억할 것은 '죄와 유혹'에 대한 오웬의 통찰, 곧 그리스도인이라도 얼마나 쉽게 영혼의 싫증과 육체의 게으름으로 선하신 창조주를 피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선한 창의성의 책무로부터 떠날 수 있는지를 아는 자기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은 왜 창조적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 외에 그분의 창조성도 닮았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은 기독교인만의 무기일 수도 있다. 미와 덕이 분리되지 않듯,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성도 분리되지 않으니 말이다. 바빙크의 말처럼 구분은 되어도 분리는 될 수 없는 지식을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다.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출발하여 강화된다. 창의성은 어디로 향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창의성(달란트)을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충성 되이 선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조주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그날이 오면 그분의 창조성을 따라 그분의 창조활동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이보다 더 좋은 창조를 상상할 수 있을까?

나동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 동대학원에서 석 · 박사를 마쳤으며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상에 근거한 '디자인의 책임윤리'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디자인집의 아트디렉터이며 문화부산하 문화사역단체인 사)땡스기브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현재 평촌열린교회의 집사이다.

2013년 신입생
현재 모집 중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hy God!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는
기독교적 고전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을 지향하는 **국제학교**입니다.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 입학

Kindergarten(유치원생)/Grammar Level(초등학생 1-5학년)
▶2009년생부터 입학 가능

전과목 영어 수업
(한국교회사, 한국역사 제외)
각 학년 원어민 담임교사제

고전어(라틴어)
영어 어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고전어 수업

SICA
강남 소재
유일의 차별화된
기독교적 고전학교

리더십과 관계를 위한 최고의 기독교적 품성교육

교과서 대신 살아있는 인문고전을 교재로 사용

차별화된 수업 방법
Sound offs, Disputatio,
Trivium(Grammar/Logic/Rhetoric)

특화된 예능 수업
1인 1악기 오케스트라 운영
수영 및 다양한 체육 수업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문의 | 02.557.7710
sicacademy@dcty.co.kr
www.sicacademy.org

www.WORLDVIEW.or.kr
www.CMCA.or.kr

기독미디어아카데미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국민일보, CGN-TV 등 주요언론단체와 협력하여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1인 미디어 시대에 필요한 미디어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10기 모집!

기독미디어아카데미

Christian Media & Contents Academy

모집안내

접수기간 2013년 9월 25일(수) 까지

지원자격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세례교인, 75년 이후 출생자)

접수방법 홈페이지(cmca.or.kr) 가입 후 원서 접수

면접전형 2013년 9월 27일(금) ~ 9월 28일(토) 면접 시 개별공지

합격자 발표 2013년 10월 2일(수) 개별 통보

교육안내

교육기간 2013년 10월 5일(토) ~ 2014년 2월 1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6시

교육장소 서울 국제 크리스천 아카데미(SICA, 양재동 소재), CGN-TV(서빙고동 소재)

등 록 금 ~~1,200,000원~~ 〉〉〉 350,000원 외부후원으로 등록금만 납입합니다.

커리큘럼

세 계 관 교육과정 신국원(총신대 교수), 이승구(합신대 교수), 성인경(한국 라브리 대표)의 세계관 기초 강좌
문화, 예술, 과학, 미디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세계관 특강

미 디 어 교육과정 스토리텔링, 기획, 촬영, 편집 이론, 방송 구성 등 이론 교육
카메라 조작, 개인 UCC 제작, 방송뉴스 제작 등 실습 교육
영상캠프와 졸업작품을 통한 포트폴리오 구성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발부되며, 협력 기관 응시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강의 진행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 의 02.754.8004, cmca@worldview.or.kr
담 당 홍정석 간사 (010.4296.1707)

WORLDVIEW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hristian Worldview Studies Association

WORLDVIEW COLUMN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학교

주일학교 교사 멘토링!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HOW TO. 주일학교
비전과 자아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멘토 신국원에게 묻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위로받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합니다.

Q1. 넌 아주 특별해! 우린 어떤 점에서 특별한 걸까요?

인격적인 존재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너"로 만드셨지요. 인격의 본질은 자유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요한 칼빈은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으로 지어졌기에 '예'뿐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만을 향해 할 일과 해서는 안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명령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순종으로 존재하는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런 특권과 책임을 누리지 못했더라면 범죄 할 수 없었지요. 죄란 세상에 본래적으로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인해 들어온 윤리적인 실패의 비극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인간관과 크게 다릅니다. 첫째, 자율적인 인간관과 다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체질과 성격을 타고나며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둘째, 결정론과도 다르지요. 마르크스가 주장하듯 경제에 의해 결정되거나 프로이트의 말처럼 본능과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가 개인의 정체성을 정한다고 주장하는 구성주의와도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이 전적으로 자율적이지 않지만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는 수동적인 존재만도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종교적 존재입니다.

Q2. 아이들에게는 '다스린다'는 말이 '내 뜻대로 하다'의 의미로 이해되나 봅니다. '맡긴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선악과를 두신 이유

선악과는 무감독 시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감독을 않는 것은 컨닝의 유혹에 빠트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 보든지 않든지 정직한 자세를 갖는 성숙함을 배울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애에겐 불을 가까이 못하게 하지만 불을 영원히 멀리 할 수는 없지요. 또 고의로 데게 하여 그 위험성을 가르칠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기에게도 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애쓰지요.

선악과를 성본능과 비교해 봅시다. 성적 충동은 선한 것이지만 때때로 괴로운 유혹의 빌미가 됩니다. 오늘날처럼 성적 자극이 가득한 문화 속에서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순결은 바른 인격 성장이나 건전한 결혼 생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든 유혹에서 차단된 진공 속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선악과는 온전한 자유를 행사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선악과는 결코 인간을 시험하는 유혹이나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주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가를 보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나? 라던가 그것을 먹을 때 왜 막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선악과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시는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Q3. 인격적인 순종?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시는 배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신다?!

선악과와 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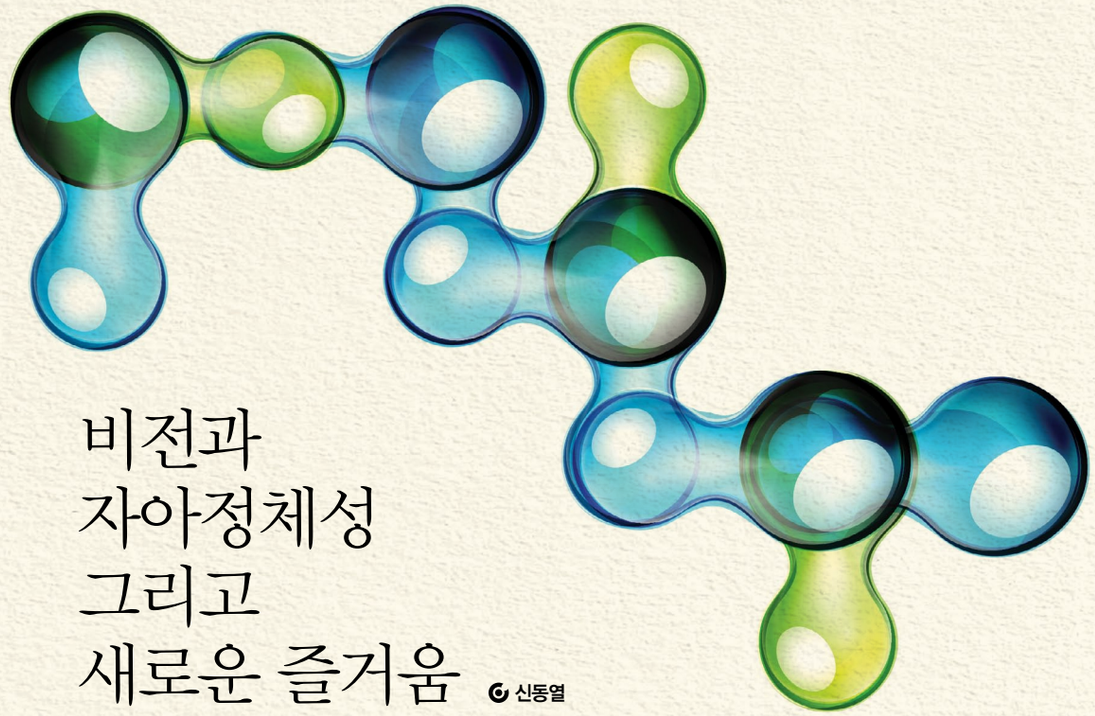
선악과는 율법과 비슷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의며 악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지요.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줍니다. 마치 교통질서를 잘 지킨 사람은 경찰이 따라와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는 알코올측정기에 대고 마음껏 숨을 불어넣습니다. 숨겨야 할 것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미혹된 마음에는 선악과가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이 담긴 약속의 상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처럼 타락은 인간의 감각과 이성 그리고 판단력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인간은 더 이상 선을 알지도 못하고 행할 능력은 더욱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범죄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요. 심판과 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부모나 선생님의 말을 어긴 결과 어려움을 자초한 우둔한 자녀나 학생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악을 스스로 경험하여 비참한 결과 속에 고통스러워 하면서 비로소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아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것 자체가 악의 한 모습이지요.

죄는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샬롬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IVP) 등이 있다.



비전과 자아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

신동열

비전교육과 진로교육의 차이

비전이라는 주제는 기독교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크리스천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한 소망과 계획을 품는 것은 기독교교육의 필수적인 내용이다.

크리스천에게 진정한 비전이란, 이 땅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청년들을 향한 기독교교육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접근으로 어떤 직업, 일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비전을 너무 직업으로만 접근하면 분명 다른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교육이란 점진적인 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기독교세계관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만이라도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기독교교육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비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진다. 어느 교단의 청소년 공과 집필에 참여한 경험상 청소년들은 매 학년 매 학기 마다 비전이라는 주제를 접하게 된다. 교회의 수련회 등에서도 비전은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이다. 기독교교육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비전과목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비전을 고민하게 한다. 이처럼 비전교육은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비전교육을 진행하는 사역자나 교사들 중에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다. 일단 청소년들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겨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교육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 이후에도 그들의 비전과 꿈이 잘 형성되지 않으며 형성된다 하여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먼 것들을 비전

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교육한 크리스천 교사들은 좌절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일단 너무 빨리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려는 조급함이나 비전교육 시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도 원인이다. 또한 학생들과 깊은 교제 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단체에서 진행하는 비전교육이 겉으로는 하나님, 사명, 영광돌림, 은사 등의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나 그 속은 일반적인 진로교육이 다루는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식을 다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전교육은 일반적인 진로교육과 분명 다른 것을 가진다.

비전교육과 진로교육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일반적인 진로교육을 살펴보자. 일반적인 진로교육은 크게 네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개인의 재능을 심리검사로 파악하고, 둘째는 그 재능에 어울리는 직업들을 소개한다. 셋째는 그 직업들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돕고, 넷째는 그 직업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세운다. 이것이 일반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내용이다.

일반적인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다. 어떤 학과, 대학, 분야, 직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진로방향성을 찾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전교육은 진로방향성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이런 일반적인 진로교육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비전교육에도 분명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비전교육은 이런 교육 이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교육이 있다. 그것은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선행교육 없이는 비전교육이 일반적인 진로교육을 넘어서지 못한다.

성경적인 자아정체성

그중에서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교육은 성경적인 자아정체성이다. 자아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스스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아정체성은 비전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아이패드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 아이패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아이패드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용도가 좌우된다. 아이패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그것을 라면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거나, 그 위에 화분을 올려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아이패드는 망가진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비전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성경적 자아정체성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세상의 영향받은 자아정체성과 성경이 말하는 자아정체성을 다루어야 한다. 먼저 세상이 주입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즉 성경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앞서 이미 학생들 안에 이미 세상의 영향으로 자리잡은 정체성을 다루어야 한다. 자신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며 천천히 누적되어 온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세상은 개인들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쉽기 때문이다.

세상이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람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 즉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은 물질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은 결국에 혼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체성에서 나오는 비전은 당연히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게 된다. 공부의 목적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것에 집중된다. 또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수치이며 홀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추어 안전을 이루는 것을 능력으로 정의한다.

그리하여 개인은 결국에 고통 당하게 된다. 영적인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려고 한다. 즉, 마음의 공허함을 감각적인 소비로 달래려고 하며 이후에 더 큰 공허속에 힘들어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속은 우울과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다가 이웃들과 관계를 중단하고 자신의 세계에만 빠져들고 만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이다. 인간은 물질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물질의 궁핍도 힘들지만 영혼의 목마름이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마음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한다. 둘째는 개인은 혼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며 그속에서 완전하지 않아도 사랑과 수용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이다.

이런 성경적 자아정체성을 갖게 되면 가시적인 물질의 비축, 즉 돈에만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한다. 화려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과정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에 불편해 하지만 불안해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와 만남 속에 은혜를 받고, 베풀며 누릴 것을 소망하며 결핍 속에서도 여유를 찾고 완벽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열정을 품게 된다.

정체성의 발견이 비전의 내용을 결정한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성경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성경이 제시하는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된다.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정체성 속에서 자신을 지키게 된다.

또 다른 즐거움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에게 성경적인 자아정체성을 인식하게 할 것인가? 무책임하게 들리겠지만, 결국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한다. 성령의 손길이 학생들을 만지셔서 자신들이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내면의 감각이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기도말고는 답이 없다.

더불어 교회에서는 새로운 즐거움을 개발해야 한다. 즐거움이라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성경적인 정체성을 학생들이 아는 것은 그래야 한다는 당위성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관계적인 존재로서 즐거움을 통해 경험해야 한다.

세상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것은 물질적인 즐거움으로 개인의 욕구와 본능에 충실할 때 생기는 즐거움이다. 성적이 오르는 것은 큰 즐거움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소비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유명해지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좋은 곳에 취업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강한 힘을 소유하여 세상을 주도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청소년들이 이런 즐거움만 듣고 보고 알고 있으니 그들의 비전이 이런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영적이며 관계적인 우리의 정체성에는 더 강력한 또다른 즐거움이 있다. 그것은 공부의 결과보다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즐거움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돈을 포기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거룩한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즐거움이다.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기 위

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뛰어드는 것도 엄청난 즐거움이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대단한 즐거움이다. 강한 힘이 없어도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비전이란 엄밀히 말하면 즐거움과 연결된다. 하나님의 뜻이니 고통스러워도 무조건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즐거움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 감각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도 즐겁지만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즐거움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세계관이 입각한 비전교육의 중요 요소이다.

기독교교육의 위기는 즐거움의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교육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한 즐거움이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에 세상이 제시하는 즐거움이 자리잡은 것이다. 따라서 성경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즐거움을 개발하고 찾아줘야 한다. 청소년들은 맛있는 간식도 즐거워하지만,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전에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희열을 맛보기도 한다. 컴퓨터 게임도 즐겁만, 컴퓨터 중독에 빠진 이들의 대안을 함께 찾자는 워크샵에 놀랍게 몰입하고 즐거워 한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워하지만, 직업을 통해 이웃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에도 기쁨을 느낀다. 우리가 섬기는 청소년들은 세상에 영향받은 아이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도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들이다. 물론 이러한 거룩한 즐거움과 자아정체성을 교육하는 것은 이런 즐거움을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가능하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먼저 거룩한 즐거움에 감격하고 확신이 있을 때에만 그것을 경험치 못한 이가 궁금해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며 함께하게 될 것이다. 비전교육을 진행하는 이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곳을 안내하는 가이드의 밝은 표정을 가져야 한다.

비전교육의 목적이 진로교육을 넘어 기독교세계관으로 자신과 세상을 정의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속에서 거룩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시작은 자신이 어디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찾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럴 때 의무감이나 비장함, 그리고 사명의 지나친 무거움이 압도하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 자유와 평안, 여유와 기쁨을 누리는 매혹적인 비전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신동열 총신대학교 신학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다. 전 한국기독학생회(IVF) 간사(서울교대, 인천대 담당)를 거쳐 현재 소명교육개발원 대표이자 현 수서은혜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호플론 다이어리」, 「소명에 답하다」의 저자이며, 사랑의 교회 청년부 '소명아카데미' 주 강사 및 현 드림국제학교 비전과목 주 강사 및 교육기획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약/신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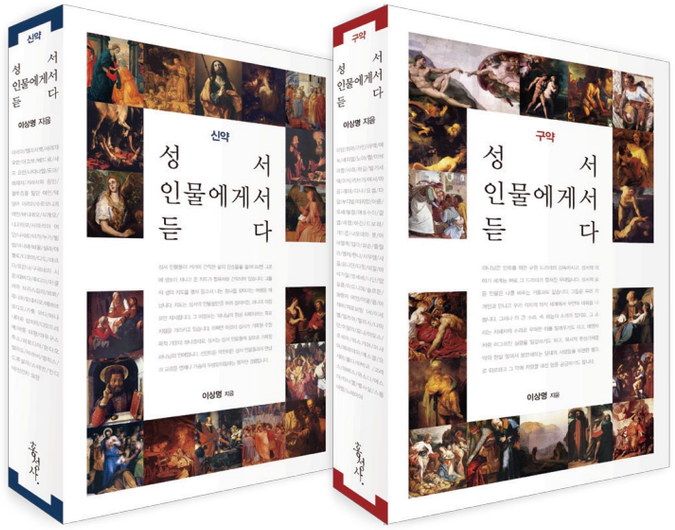
성서 인물에게서 듣다

성서 인물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歷史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役事하다

구약편 77명, 신약편 50명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자기성찰 그리고 관련된 명화들이 주는, 읽는 즐거움과 감동!

이 책에 기록된 '사람 숲'에 나타난 '하늘 소리'를 통하여 2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명용(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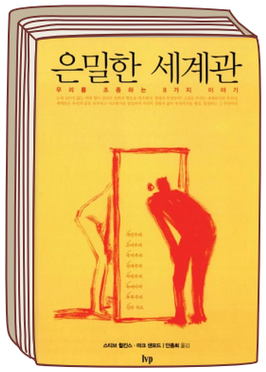
다양한 문학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성서 인물들의 생애를 다룬 이 책은 지성을 깨우치고, 감성을 흔들며, 영혼을 각성시켜 준다. 성서 인물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과 성경 공부 인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 –강준민(새생명비전교회 담임목사)



이상명(성서신학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지음
464면 | 신·구약편 각 17,000원

홍성사

T. 333-5161 http://www.hsbooks.com



스티브 윌킨스, 마크 샌포드 저
안종희 역

은밀한 세계관

송인규 (합신대 교수)

오래간만에 흥미롭고 유익한 기독교 세계관 책자를 읽었다. 이 주제로 쓰인 여러 책들 가운데 필자가 도움을 받은 책자가 몇 종 있는데, 이제 『은밀한 세계관』 역시 그 범주에 넣어야 할 것 같다.

서론적 안내

『은밀한 세계관』은 Hidden Worldviews: Eight Cultural Stories that Shape Our Lives이라는 미국 IVP 저술의 번역판이다. 저자는 두 명인데, 그 중 하나는 과거 Christianity & Western Thought라는 삼부작 가운데 2부와 3부를 공저한 스티브 윌킨스(Steve Wilkins)이고, 또 하나는 마크 샌포드(Mark Sanford)이다. 두 명 모두 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교육이나 양육에 참여한 인물들로서, 이 책자의 이론 부분은 아마도 주로 윌킨스에게서, 실제적 삶의 정황에 대한 묘사는 주로 샌포드에게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책자는 제목이 예시하듯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 세계관 및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책자가 하도 많이 나와서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길잡이가 필요하다. 세계관 서적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최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세계관의 취급 영역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일반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대별이 된다. 전자에는 주로 문화 인류학자들이나 선교학자들의 책이 속하는데, 대표적으로 폴 히버트의 Transforming Worldviews가 있고, 후자에는 미들턴 · 왈쉬의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있다.

둘째, 세계관에 대한 논의 방식과 관련해서도 두 종류의 책자들이 대별된다. 하나는 여러 종류의 세계관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관"이라는 개념 자체의 분석에 천착하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 예가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고, 후자의 예들로서 데이빗 노글의 Worldview: The History of A Concept, 알버트 월터스의 『창조 · 타락 · 구속』 등이 있다.

『은밀한 세계관』은 취급 영역으로는 주로 "일반적 세계관" 쪽으로 기울어 있고 (비록 책자의 마지막 두 장은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고 있고, 또 저자들은 이 책자가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쓰였다고 말하지만), 논의 방식으로 보자면 "목록 작성" 식의 뼈대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책자의 형식적 면모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과 유사성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묘사의 스타일이나 전개 과정에 있어서는 꽤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책자의 특이성

그러나 이 책자는 유형의 분석으로서 그 독특한 성격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 적어도 아직도 두 가지 사항이 더 지적되어야 한다. 첫째, 책자의 저술 목적이 특이하다. 이 책자는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견지하고 있는 세계관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대체로 이런 내용의 세계관 책자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전도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쓰인다. 그런데 이 책자는 그런 내용을 다루면서도 주된 저술 목적이 그리스도인 자신의 변화에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 책의 많은 내용은,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스며들어 우리의 사상과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된 나머지 잘 보이지 않는 비기독교적 세계관들을 확신하고 떨쳐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11쪽).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소개된 내용을 "일상 생활의 세계관"이라 부르는 것은 매우 적실히 여겨진다.

둘째, 책자의 저술 양식이 특이하다. 대부분의 기독교 세계관 책자들은 명제적 기술 위주로 글이 쓰이든지 아니면 아예 반대로 이야기체 스타일에 의지하든지 양자 택일의 경향을 띤다. 그런데 이 책은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화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책자가 저자들의 말처럼 스토릴텔링에만 전념하는 듯 보인다. 그들은 성경의 제시 방식이 그렇고 인간의 세계관 제시가 그렇다며 철두철미하게 이야기체를 고집한다. 그리하여 세계관의 구성 요소를 다섯 가지 중심원으로 예시하고, 그것들을 이야기 → 정체성 → 확신 → 가치관/윤리 → 도덕/행동으로 엮어 낸다. 여기까지만 고려하면, 많은 독자들은 이 책이 스토리텔링의 전형적 유형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웬걸! 실제로 책을 읽어 보면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달리 수많은 개념과 용어들이 등장하고, 내용 전개 방식이 정례적으로 패턴화되어 있으며, 앞 부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저자들의 촘촘한 논변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물론 이런 식의 논리적 전개 방식이 흔히 쓰여진 기독교 세계관의 책들(철학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고)보다 좀 더 비체계적이고 좀 더 유연하며 좀 더 스토리텔링 식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읽는 이들로서는 이 책자가 만만치 않은 탄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책자가 명제적 기술과 이야기체 스타일을 함께 아우른 것으로 소개한 것이다.

이처럼 『은밀한 세계관』은 저술의 목적과 저술의 양식에 있어서 독특한 책이다.

내용의 소개

이 책자는 부제가 나타내듯 북미 사회에 숨어 있는 8가지 세계관 — 개인주의, 소비주의, 국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포스트모던 부족주의, 종교가 된 심리 치료 — 을 선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은 이미 우리의 귀에 익숙해 있으나, 어떤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 또 어구는 이해가 가되 실상 무엇을 가르치는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항목도 있다.

개인주의(individualism)는 자아가 우주의 궁극적 실재이고, 각 개인은 자기 충족을 추구해야 하며, 자기 스스로 개인의 운명을 통제한다는 신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관은 이론상으로도 맞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난국에 봉착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웃(및 공동체)을 인정하는 맥락에서의 "나" 혹은 "개인"을 말한다.

소비주의(consumerism)는 소비와 다르다. "소비"는 인간의 기본 생존 조건과 연관된 것으로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개선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소비주의는 이와 달리 처음에 상대적이었던 선 — 소비 — 을 결국 절대적 선으로 대체한 관점이다. 이로써 우리의 욕구는 환원주의적 방식으로 정의되고, 우리의 가치관은 재정의된다. 성경은 우리의 소비 욕구를 재물에 대한 청지기직(의무와 책임)과 연관시킴으로써 우리가 소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한다.

국가주의(nationalism)는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보장되는 세 가지 방식의 힘 -- 정치적 · 사회적 안정, 국방력, 경제력 -- 을 추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실 국가가 갖는 정체성으로 인해 개인주의 · 협소한 부족주의가 통제되고, 국가로 말미암아 공공선이 제공되며, 공동체나 민족 집단의 역사적 유산을 이해하게 되는 이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의 정체성이 상대적임을 망각하고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절대화할 때, 국민으로부터 지나친 충성을 요구할 때, 어느 한 국가가 기독교와 동일시될 때, 종교적 국가주의라는 교묘한 세계관이 극성을 부리게 된다.

도덕적 상대주의(moral relativism)에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적 상대주의로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고, 또 하나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표기할 터인데) 좀 더 흔한 형태의 입장이다. 도덕적 상대주의자는 객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윤리적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서, 그러한 상대주의적 견해를 주장하는 지적 근거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 상대주의"는 절대주의자들의 태도나 입장에 대한 "반발"로부터 연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해 선택의 이유가 지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다.

그런데 도덕적 상대주의든 "도덕적 상대주의"든 결국에는 도덕적 상대주의의 주장 근거가 얼마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입지가 결정된다. 불행하게도 도덕적 상대주의는 그렇지 못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도덕적 상대주의가 참으로 확립되려면 객관적 진리로부터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상대주의는 후자를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자패적(自敗的, self-defeating)이 되고 만다. 둘째, 도덕적 상대주의는 일관성 있는 삶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도덕적 상대주의에 의하면, 예를 들어 내가 고문을 당할 때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셋째, 도덕적 상대주의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도덕의 공통 분모를 매우 낮춰버린다. 이것은

앞에 제시한 두 가지 문제점으로부터의 자연적 귀결이다.이처럼 도덕적 상대주의는 ("도덕적 상대주의"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견 매우 타당하고 지지 기반이 탄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도 견지할 수 없는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인 세계관인 것이다.

과학적 자연주의(scientific naturalism)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물질이며, 다른 모든 비물질적 실체들 -- 하나님, 영혼 -- 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이다. 물질은 "자연 법칙"의 지배 하에 한결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과 관계에 의거해 사물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일은 합리적이다. 이것은 특히 과거 여러 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바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의 혁신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결국 과학적 자연주의는 우리가 이성에 의지한다면, 과학 기술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적 자연주의는 인간의 위상을 축소시키고, 아이러니하게도 합리성을 약화시키며, 도덕적 책임이나 진보 · 목적 등의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

뉴에이지(the New Age) 운동은 쉽사리 정의를 내리거나 묘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비정형적인 활동 및 사상의 혼합체이다.
때로 이 운동은 개인의 영적 각성이나 평화와 같이 다소 좁은 범위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개인적인 영적 변화는 우주적인 "새 시대"의 전조로 간주된다. 이 운동의 사상적 원천은 만물의 통일을 꿈꾸는 동양의 일원론과 절충주의(eclecticism)적 색채를 띤 서양의 개인주의이다. 그러나 뉴에이지 사상은 우리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잘못 이해된 자기 구원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사회 비전이 결국 모순을 함의한다는 점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포스트모던 부족주의(postmodern tribalism)는 미국과 같이 다인종 · 다문화로 구성된 대형 국가가 하나의 사회적 통일체를 유지하고자 애쓰는 역사적 과정 가운데 발생한 독특한 세계관이다.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지배적인 문화 교류 모델이었던 용광로(melting pot)는 곧 모자이크 모델로 표방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자리를 내 주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모델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포스트모더니즘이 들이닥쳐 이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었다. 오직 지배권을 행사하는 부족 (예를 들어 백인, 그리스도인, 미국인) 만이 문화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들은 이에 맞서 정치적 전략을 도입해서라도 권력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식의 부족주의는 다른 문화적 그룹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인이 부지 중 권력에 의존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만들며, 제도적 죄의 측면을 인식하도록 만들고, 문화적 다양성을 의미 있게 보도록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포스트모던 부족주의는 문화결정론을 전제하고, "내 부족"을 절대화하며, 또 다른 권력 싸움을 조장하고, 부족 사이에 피해 의식을 조장하며, 문화적 환원주의의 우(愚)를 범한다는 점에서 비판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종교가 된 심리 치료(Salvation by Therapy)는 원래대로 하자면 "심리 치료에 의한 구원"을 외치는 세계관이다. 저자들이 선호하는 바 "온전한 심리학"적 관점은 일반 심리학 (대표적 예로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로저스의 인간중심 심리학, 스키너와 행동주의, 가족 체계 치료 등)이 내포한 형이상학적 모델은 받아들이기 거부하되 일부 치료 방법과 전략 측면은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종교가 된 심리 치료"는 자신의 세계관을 종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절대적 견해를 고집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종교가 된 심리 치료가 인간 본성에 관해 그릇된 가정/전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여야 한다. 첫째, 심리학적 접근 방법에 높은 수준의 결정론을 상정한다. 둘째, 인간의 삶에 대한 환원주의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로 축소한다. 넷째, 종교가 된 심리 치료는 가치 중립적 심리학을 운운하는데 이는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들은 북미 사회에 교묘히 침투해 들어와 있는 세계관을 이상과 같은 8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찰에의 촉구

『은밀한 세계관』이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해서 그 책 자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두 저자들과 달리 한국이라는 사회적 · 문화적 토양 속에 기독교적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은밀한 세계관』이 던지는 의미와 도전이 무엇인지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그러한 성찰 작업을 두 가지 항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상의 여덟 가지 세계관이 우리의 문화적 정황과 얼마나 유사한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개인주의"의 사안에 있어서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일치하지 않는 점이 더 많다. 개인주의가 만개하려면 권위, 공동체, 자아 인식 등

의 관념으로부터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공동주의로부터의 전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북미의 개인주의와 차이가 많이 난다. 단지 젊은 세대의 경우 사적인 결정이나 선택 및 자기 표현에 있어서는 점점 더 북미의 개인주의를 닮아 간다고 하겠다. "소비주의"는 개인주의 관점에서 보면 북미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지 않은가 생각된다. (물론 아직도 경제 관념, 경제 질서, 자본주의적 특징 등 거시적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국가주의"는 원래부터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강하다. 한국의 국가주의가 그렇게 발전한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우리는 미국에 비해 단일 민족 (완전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북한과 이데올로기상 대치하고 있다. (또 주변에 중국과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국가주의는 미국과 달리 기독교와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한국 사회에 전보다 훨씬 더 유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성 윤리의 영역에서 그렇다.) 그러나 도덕적 상대주의 [저자들이 지적한 바 철학적 근거에 입각한 입장]는 거의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과학적 자연주의"는 일부 지식층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뉴에이지"는 서양식 개인주의를 제외하면 한국 사회에도 크게 편만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주적 차원의 "새 시대"는 별 사상적 공감이나 문화적 표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단지 개인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이고 동양 종교적인 행습과 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무속주의와 뉴에이지는 사상적 친화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적 접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포스트모던 부족주의"는 미국 특유의 현상이므로 아직까지 한국 사회와 문화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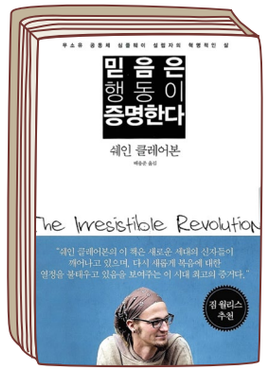
"종교가 된 심리 치료" 역시 한국 풍토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다. 물론 앞으로 심리 치료나 상담 등이 한국 사회에서 크게 번성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둘째, 현재 한국의 실정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은밀한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와 문화 속에 편만해 있을 뿐 아니라 교회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 세계관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 또한 시급하고 중요하다. 여차하면 그 누군가 이런 식의 책을 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한국 내에 풍미하는 "은밀한 세계관"으로 제시해 본다.

— 기복주의— 자아주의
— 학벌주의— 경제주의
— 쾌락주의— 성공주의
— 외모주의— 미국주의

『은밀한 세계관』은 북미의 문화를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분석하고 처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또 번역 또한 수준급으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일독을 강력히 추천한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가 한 시 빨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은밀한 세계관』의 저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인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며, 새시대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IV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시라큐스 대학에서 철학을(Ph. D) 공부하였다. 저서로는『나의 주 나의 하나님』,『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지성』, 『고립된 성』,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서』(이상 IVP),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



쉐인 클레어본 저 | 배응준 역
아바서원

믿음은 사랑이 증명한다
쉐인 클레어본의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한정호

사명에 대해 다시 질문하기

크리스천의 사명은 무엇일까? 쉐인 클레어본은 책의 서두에서 이와같이 질문하면서 시작한다. 사명에 대한 물음과 답은 이 책의 전체를 감싸는 주제이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의 제목처럼, 저자는 오직 '사명'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독자의 심정은 경이롭거나 불편할 뿐이다.

저자의 삶이 감동적이면서도 불편한 것은 그의 '급진적인 삶' 때문일 것이다. 대개 '급진적'(radical)이라는 단어의 뜻은 '진보적'(progressive)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가 쉽다. 하지만 저자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 자신을 '평범한' 급진주의자로 소개한다. 그는 '급진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뿌리'(root)로 받아들이고서, 자신이 기독교의 뿌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소개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내려는 한 사람의 '평범한' 급진주의자로 이해될 수 있다. 말씀 그대로 온전히 살아내려는 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반면 그가 추구한 '삶의 방식', 곧 '심플웨이' 공동체의 시도는 보는 이에게 불편함을 준다. 심플웨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세 가지 비전에 따라 부유한 도시 속 '빈민가'로 들어갔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한 때만 말하라'는 슬로건은 낮은 자리에 있는 뉴욕 뒷골목의 노숙자들과 인도의 환우들, 이라크 공습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향해 철저히 지켜졌다. 개인의 회심과 변화가 우리와 세상에게로 확장된다는 것을 몸소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조직신학을 통한 것보다도 노숙하는 엄마들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는 그의 고백처럼, 저자는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다.

이 책은 세상에 '사명', '정체성', '삶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답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 역시 위의 세 가지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크리스천의 사명은 전통적인 교리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믿음과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며, 어디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상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차례대로 정리한 후 결론적으로 함축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명, 개인으로부터 세상으로

첫 번째 질문은 '사명'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크리스천의 사명이 내세를 향한 희망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문을 제기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설교를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설교에 갈채를 보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만 숭배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저자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영악한 모습을 고발한다.

"문제는 지극히 단순하다. 성경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활한 협잡꾼 패거리이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척한다."

저자에게 사명이란,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자 온전한 헌신이다. 그렇게 구현된 사명은 개인의 영혼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이 그분의 나라를 통해 회복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이러한 저자의 교회론은 '와서 교회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향해 '세상으로 들어가자'고 선언한다. 구원론, 교회론과 밀접하게 연결된 저자의 사명은 오롯이 행동을 통해서만 입증된다.

진짜 무신론자는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저자의 고백 속에서, 영혼의 변화가 세상을 향한 애통함과 긍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 리처드 마우는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이 균형의 문제가 아닌 순서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칭의'와 '형벌 속죄'가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이어야 한다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우리 개개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형벌 속죄가 구원의 필수 기초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저자에게 사명이란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정체성,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아닌 사랑으로

두 번째 질문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저자가 소개한 '평범한 급진주의자'는 정확히 어떤 존재를 말하는가? 그는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된 사회처럼 교회 역시 그렇다고 하면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채 반대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거듭남은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우리'와 '그들'을 적대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우리'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저자가 정의한 '평범한 급진주의자'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뿌리'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삶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교회에 '신자'가 넘쳐나듯이 사회정의 운동권에도 '운동가'가 흔하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략)… 우리에게는 단순히 거리 운동가들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고통받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이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평범한 급진주의자의 정체성은, 곧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선이라는 거리감 있는 행위보단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기대하신다. 교회가 언제나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길 원하신다. 저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만이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삶의 방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에 응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고통받는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명을 찾아야 한다. 삭개오와 마태는 세상의 패턴과 맞지 않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실천하기 위해 도시 빈민가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지냈고, 이라크 평화팀과 함께 바그다드로 떠나기도 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에서 희년행사를 거행하며 제국의 맘몬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공동체와 소박한 삶의 중요성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삶의 면면에서 드러나는 존재 방식은 두려움과 불안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다.

저자는 안전함과 안락함이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의 삶은 불안과 약함을 드러내면서도 거침없이 사랑을 향해 질주한다. "크리스천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 불확실성을 창조하는 사람, 사회와 공존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자끄 엘룰처럼, 그의 삶은 위험과 불안 속에서도 불평등의 악순환 및 피조물의 탄식을 그치는 일에 치열하게 달려간다. 단지 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질문했고, 그 질문에 충실하게 답하며 살았을 뿐이었다.

사랑으로 맘몬을 굶겨 죽여라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깊은 울림을 준 문장을 꼽으라면, 나는 '사랑으로 맘몬을 굶겨 죽여라'를 꼽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본질을 함축한 이 문장은, 회심한 저자의 삶을 사로잡은 핵심 가치가 되었다. 그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의 사명도, 정체성도, 삶의 방식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랑으로 행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들에겐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불편한' 이야기가 된 것이다. 저자의 삶을 신학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것은, 그의 삶이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과 사랑의 행함으로 맺은 열매임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전반에 암묵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저자의 삶의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저자가 말하는 거듭남을 통한 소유의 재분배가 과연 우리 현실에 필요한 기독교적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소박한 삶을 살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맘몬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저자의 지적은 어떤 면에서 자신에게 화살을 당기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가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와 중심은 '사랑'이다. 기쁨이 결핍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 믿음은 사랑이 증명하는 것이다.

한정호 '일주일에 책 한 권'읽는 일책 모임을 만들고, 책 읽기를 통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중이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M.ed)를 졸업하고 은평구 갈현동에 소재한 세광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임원 및 조직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부이사장	김의원(백석대 부총장), 양인평(법무법인(유)로고스 고문)
이사	김승욱(중앙대 교수), 박상은(샘병원 의료원장), 원동연(한국종합과학연구원), 이강인(엘비젼 대표), 전광식(고신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김성수(고신대 총장), 양승훈(VIEW원장), 이인용(삼성전자 사장), 조민제(국민일보 회장), 조정민(CGN-TV 前사장)
감사	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조성표(경북대 교수)
부실행위원장	최현일(샘병원 연구원장)
실행위원	최태연(백석대 교수), 김미영((주)한국소토 대표), 김승태(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승욱(중앙대 교수), 김원수((주)일리오스 대표), 김태황(명지대 교수), 김혜정(도서출판 CUP), 신국원(총신대 교수), 이건창(성균관대 교수), 유경상(CTC 대표), 장수영(포스텍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최용준(한동대 교수)

연구본부

본부장/학회장 장수영 (포스텍 교수)
국제협력 부회장 손병덕 (총신대 교수)
학술 부회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대외협력 부회장 박문식 (한남대 교수)
연구부회장 유재봉 (성균관대 교수)
감사 김홍섭 (인천시립대 교수)
총무 문준호 (ACSI KOREA 기획실장)

세계관연구소장 김중락 (경북대 교수)
연구원 이요한

학술지 편집위원장 이건창 (성균관대 교수)

교육본부

본부장 최태연 (백석대 교수)
세계관아카데미소장 신국원 (총신대 교수)
세계관아카데미부소장 이승구 (합신대 교수)
기독미디어아카데미원장 조정민 (前CGN-TV사장)
운영위원 강진구 (고신대 교수)
운영위원 장유진 (미코필름 대표)
운영위원 유지은 (前PD)

세계관운동본부

본부장 조성표 (경북대 교수)
국제협력위원장 김승태 (예영커뮤니케이션 대표)
대외협력위원장 김원수 ((주)일리오스 대표)
중국사역위원장 정수균 (선교사)
지역관리위원장 박신현 (고신대 교수)
대학청년위원장 최용준 (한동대 교수)
언론위원장 강진구 (고신대 교수)

사무국본부

본부장 최현일 (샘병원 연구원장)

대표간사 신효영
간 사 홍정석, 김고운

지원팀
* 회계지원 : 상록회계법인
* 법무지원 : 법무법인(유)로고스

재정 독립 기관

세상의 지혜를 담는 컵
도서출판 CUP
대표 김혜정
마케팅실장 윤여근

청소년, 청년 기독교세계관 교육센터
CTC
대표 유경상
팀장 한부익, 안성희

기독교세계관 전문월간지
월드뷰 (주) 세상바로보기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 다플로마 과정 운영
VIEW 벤쿠버 세계관대학원
원장 양승훈
이사 조영택, 박신일, 김명준, 김주영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이 메 일 info@worldview.or.kr
전화문의 사무국 대표전화 02) 754-8004
후원계좌 국민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CMS신청은 사무국으로 문의바랍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 7월 31일 마감)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가월현, 구재형, 김경현, 김경휘, 김민지, 김병재, 김수경, 김희원, 남지민, 노주하, 생명의강, 영음사, 정세열, 정필규, 조성진, 진성자, 최원길, 최희정, 하태실, 황보난이, 5천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봉오, 김성민, 김성은, 김성찬, 김영윤, 김정명, 김정심, 김정원, 김정준, 김제우, 김 준, 김철수, 김태윤, 김항아, 김혜창, 노승욱, 박광제, 박승룡, 박천규,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경,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충열, 윤경숙,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돈우, 이명진, 이민화, 이윤희, 이인수, 이향숙, 임선제, 임춘택, 임형준, 장헌일, 전종화, 전충국, 정범채, 정수빈,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 김찬호, 7천5백 고상섭, 김영숙, 김효태, 민수진, 방선기, 영암교회, 유명성, 이상훈, 이은순, 이주희, 전영식, 최병호, 1만 강은정, 강호영, 강효식, 고은님, 고현경, 구준회,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길원평, 김경숙, 김경식, 김경원, 김경희, 김고운, 김규옥, 김남진, 김동준, 김막미, 김보경, 김상욱, 김성경, 김성민, 김성은, 김성인, 김세령, 김세종, 김수홍, 김슬남, 김슬택, 김영남, 김영완, 김용석, 김우신, 김원호, 김윤권, 김은덕, 김은혜, 김재엽, 김정모, 김정호, 김종국, 김준희, 김중훈, 김진아, 김창현, 김현경, 김현정, 김형길, 김형수, 김홍섭, 김효숙, 나동훈, 남서희, 마민호, 박강국, 박경원, 박기언, 박능안, 박두한, 박성인, 박영주, 박종원, 박준모, 박준영, 박진규, 박창규, 박창우, 박한배, 박해일, 박현경, 박혜경, 박희주, 배지연, 백경은, 백현준, 서유미, 서화진, 성광원, 소종화, 손현탁, 송미정, 송종철, 송철호, 송혜경, 신상형, 신성자, 신진선, 신현주, 신형균, 신호기, 신효영, 안 석, 안영혁, 양병국, 양행모, 오지순, 유건호, 유동준, 유영준, 유지황,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윤상헌, 윤영휘, 윤천석, 이 강, 이경숙, 이계심, 이권철, 이규현, 이길형, 이대규, 이명동, 이명복, 이명숙, 이명헌, 이문원, 이상무, 이상수, 이성수, 이승엽, 이시영, 이신영, 이언구, 이연철, 이영민, 이원배, 이윤재, 이은미, 이은자, 이은주,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수, 이종국, 이준성, 이지연, 이진영, 이학성, 이해리, 이호선, 이환일, 임동진, 임 영, 임일택, 장승재, 장옥경, 장유진, 장인숙, 장태준, 전명희, 전성구, 정경식, 정동섭,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정숙, 제양규, 조백형, 조성경, 조승희, 조용현, 조혜신, 차봉준, 차정규, 천성빈, 최삼열, 최성두, 최세진, 최윤영, 최익수, 최진우, 최진호, 최한빈, 최호영, 추진연, 태영숙, 하진호, 한인관, 한정호, 한진영, 한혜실, 허찬영, 허 현, 현승건, 홍선호, 홍정석, 홍준호, 홍철의, 황규영, 황세환, 황태연,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강봉남, 강용란, 김경숙, 김세광, 김요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문석윤, 박영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손향아, 양혜원, 오한나, 우시정, 이 건, 이명희, 임지연, 전광학, 정상록, 조창근, 한화진, 3만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지원, 김진호, 문준호, 박상진, 박시운, 박신현, 서성록, 양성만, 오의석, 우병훈, 이대희, 이은실, 임희옥, 장수영, 정현주, 최용준, 추태화, 홍혜진, 황정진, 4만 김정일, 엄지은, 4만2천 세린교회,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김향미, 박문식, 박시운, 서진희, 송인규,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희영, 조성대, 채기헌,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6만 조무성, 10만 김미영, 김승태, 김의원, 김태황, 박상은, 손봉호, 윤완철, 장갑덕, 전광식, 최태연, 12만 임동민, 최점일, 20만 차명실, 30만 김승욱, 김원수, 60만 양승훈

기관후원

5만 개봉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부천참빛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열린교회, 예심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20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100만 새로운교회, 엘비전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분기별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월드뷰』는 후원을 통해 만들어 집니다.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할 수 있도록 후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www.WORLDVIEW.or.kr

포털사이트에 "기독교세계관" 또는 "worldview"를 치세요!

홈페이지 전면개편!

가입이 쉬워졌어요!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완전 쉬워진 홈페이지!

천여편의 논문 및 칼럼, 기독교세계관 자료의 보고!

원하는 정보만 쏙쏙!

모바일이든 컴퓨터든,국내든 해외든!

언제 어디서나!

** 홈페이지 사용 후기를 받습니다. 후기를 대표메일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려요!

나는 손안에서 월드뷰를 본다!

m.WORLDVIEW.or.kr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WORLDVIEW
www.worldview.or.kr T. 02.754.8004

10월 기독교세계관 강좌.

기독교세계관이 말하는
개혁이 뭔데!

2013. 10. 1(화) 저녁 7시,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선신청 당일접수(등록비 1만원)! 이메일로 "이름/ 손전화/ 이메일"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대표메일 info@worldview.or.kr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문의 02-754-8004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WORLDVIEW
www.worldview.or.kr T. 02.754.8004

WORLDVIEW NEWS

기독교세계관 10월 강좌

"기독교세계관이 말하는 개혁이 뭔데!"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메일을 통해 선 등록 받습니다.

- **일시** 10/1(화) 저녁 7시
- **장소** 백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세미나실(합정역 부근)
- **주제** 기독교세계관이 말하는 개혁이 뭔데!
- **강사** 김기현 목사 VS 최태연 교수

- **등록비** 1만원
- **문의** info@worldview.or.kr / 02-754-8004 (담당 : 김고운 간사)
- **방법** "이름/손전화/이메일/소속"을 메일로 발송

제30회 기독학문학회 발표논문접수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제30회 기독학문학회를 맞이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기독학문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의 논문을 발표하는 장입니다. 기독학문역사의 3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한국 기독교를 전망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과 사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주제** 기독교세계관 기초와 실천
- **일시** 2013.11.9.(토)
- **장소**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
- **논문발표 신청마감** 2013.9.30.(월)
- **논문제출일** 2013.10.21.(월) 오전 9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접수/논문제출 받습니다.
- **문의** (학회) 02-3272-4967 / 이메일 gihakyun@daum.net

〈신앙과 학문〉 세트 판매 및 18권 4호 투고접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신앙과 학문〉은 2013년 마지막 호의 투고접수를 받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는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앙과 학문〉을 세트판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 기관은 사무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8권 3호 발행일 9월 30일 **18권 4호** 발행일 12월 31일

- **문의** 02-3272-4967(학회)
- **편집위원장 메일** faith.scholarship@gmail.com

기독미디어아카데미 10기 모집 공고

미디어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펼쳐나갈 미디어전문인 양성 프로그램 기독미디어아카데미 10기를 모집합니다. 이번 10기는10월 5일(토)부터 약 16주간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 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자격** 대학재학 또는 졸업자(세례교인, 75년 이후 출생자)
- **접수마감** 2013.9.25.(수)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속, 첨부된 양식 제출
- **교육기간** 2013.10.5.-2014. 2.8(매주 토요일, 오후 1-6시)
- **교육장소**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 서초구 양재동 소재)
- **홈페이지** www.cmca.or.kr
- **문의** 02-754-8004 (담당 : 홍정석 간사)

홈페이지 개편! 사용 후기 모집!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편리한 홈페이지 개편되었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각종 소식과 정보를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후기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사무국에서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사무국 대표메일** info@worldview.or.kr

지난 사무국 소식

신규사업 : CMCA프로덕션 오픈

CMCA(기독미디어아카데미)프로덕션을 오픈하였습니다. 미디어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컨텐츠를 제작하여 하나님나라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 전공별 기독교세계관 기초자료 DB 공시

기독교세계관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가이드가 될 전공별 기독교세계관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개편된 홈페이지에 추후 공시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기독 지성인에게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8/1 학회임원회의 실시

8/1, 학회 임원회의가 백주년기념교회 교육사회봉사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30회를 맞이하는 기독학문학회는"기독교세계관, 기초와 실천"을 주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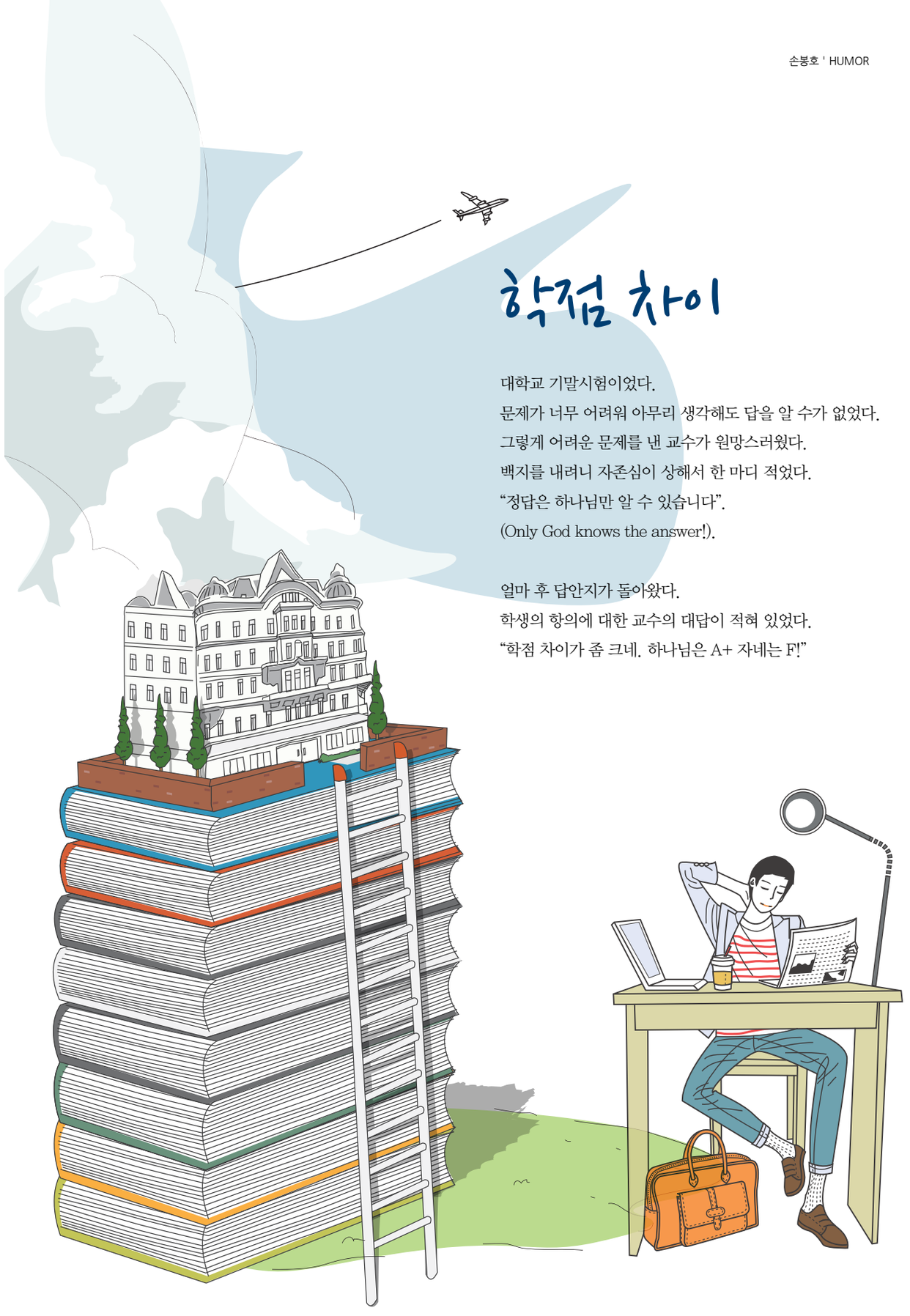
8/2 기독미디어아카데미 9기 종강식

8/2, 저녁 8시에 기독미디어아카데미 종강식이 있었습니다. 종강예배는 손봉호 이사장님께서 '정직'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졸업작품 상영을 위해 필름포럼(소영화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학점 차이

대학교 기말시험이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낸 교수가 원망스러웠다.
백지를 내려니 자존심이 상해서 한 마디 적었다.
"정답은 하나님만 알 수 있습니다".
(Only God knows the answer!).

얼마 후 답안지가 돌아왔다.
학생의 항의에 대한 교수의 대답이 적혀 있었다.
"학점 차이가 좀 크네. 하나님은 A+ 자네는 F!"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스토리 일곱.

꿈을 향한 자유를 찾고 있습니까?

한동은 입학 후 1년 동안 무전공으로 자유롭게 공부하고, 본인이 원하는 학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복수 전공 의무화로 다른 학부간 연계전공도 가능하여 160개가 넘는 전공조합을 만들어 냅니다.
자유로운 꿈을 선택할 수 있는 곳, 한동은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제 적성에 따라 원하는 전공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어서,
한동은 저에게 마음껏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현성 동문 (국제지역학+ Global Entrepreneurship 전공)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우리는 한동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동대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갈대상자' 참여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신청 : 054-260-1063 / sarang@handong.edu / http://sarang.handong.edu
문자일시 후원 : #89491995 '갈대상자' 입력 후 발송 (1건 10,000원 후원)

한동대학교

1)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동인 이야기 QR코드
2) www.handong.edu 확인

IHU 한동대학교 HANDONG GLOBAL UNIVERSITY